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경학석사 학위논문

노인집중현상을 통해서 본
제기동의 도시공간특성 연구

The Urban Spatial Characteristics of Jegi-dong
Viewed from Concentration of the Elderly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도시설계전공
김 영 은

노인집중현상을 통해서 본 제기동의 도시공간특성 연구

지도교수 김 세 훈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4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도시설계전공
김 영 은

김영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6월

위 원 장

조 경 진 (인)

부위원장

유 보 중 (인)

위 원

김 세 훈 (인)

노인집중현상을 통해서 본 제기동의 도시공간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도시설계전공
김 영 은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학위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8월

위 원 장 윤 경 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부위원장 김 노 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위 원 김 세 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노인집중현상을 통해서 본 제기동의 도시공간특성 연구

김 영 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도시설계전공
지도교수: 김 세 훈

최근 현대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일상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였으며, 노인들의 활동관련 서비스 제공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경로우대’라는 무임승차제도의 사회적 혜택을 받으면서 노인의 이동성은 이전보다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그들의 근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을 찾아 나서면서 특정 도시공간에 노인집중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집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제기동을 공간적 범위로 지정하였으며 연구의 대상을 제기동에 방문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떠한 노인들이 도시공간을 선택하고 이용하고 있는지 주목하여, 노인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변화된 도시공간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물리적, 인문사회학적, 경제적 3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도출해 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기동은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이자 노인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주어지는 다양성을 지닌 공간이다. 노인들의 일상여가를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고 있는 이 도시공간은 최근 노인들의 기호에 맞춰 복합화된 형태의 공간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처럼 제기동이라는 도시공간은 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과 공간들이 잘 엮여 나타나는 ‘일상-여가’의 융합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집중현상이 나타나는 제기동은 사회적 교류의 공간이다. 노인들의 사회적 교류활동은 제기동의 도시 공간 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각 공간마다 사회적 교류활동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분석을 통해, 노인들은 공간이 구획된 것보다 주로 오픈되고 넓고 활 트인 공간에서 사교활동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제기동은 다른 도시에 비해 시장이 위치해 물가가 저렴하며 경제력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인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도시이다. 이 도시공간은 매달 연금 30만원 이상 받는 노인들에 맞춰 하루에 10,000원씩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세팅되어 있으며 이는 철저한 경제적 구조에 의해 구성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인들은 그들의 소득수준으로 일상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나서고 있으며 제기동은 철저하게 잘 짜여진 경제적 구조로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기동은 노인들의 소득수준에 최적화된 도시공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은 덜 트렌디하고, 오래된 것, 비용이 덜 드는 곳을 선호하고 있다. 노인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특징들은 도시공간에서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을 수용하는 공간적 특성을 노인집중현상이 나타나는 제기동에서 발견하였으며, 이는 전체 도시로 확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노인집중현상에 주목하여 노인들의 특성을 밝히고 노인들이 선호하는 공간의 특징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자가 제기동에 방문하는 노인들로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일반적 노인들의 특성이라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예비노인층(50세-60세)을 포함한 미래의 노인들은 현재의 노인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 이에 연구결과가 다소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 주요어: 노인, 제기동, 집중현상, 일상여가, 도시공간

■ 학 번: 2013-23701

목 차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
1. 연구의 배경	01
2. 연구의 목적	02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03
1. 대상지 선정 이유	03
2. 연구의 범위	04
3. 연구의 방법	05
3절. 연구의 진행과정	08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절. 노인의 정의 및 특성	09
1. 노인의 정의	09
2. 노인의 특성	10
2절. 노인의 일상여가활동 공간 및 통행특성	11
1. 노인의 일상여가활동 특성 및 공간	11
2. 노인의 통행 특성	18
3절. 도시의 노인집중공간 사례연구	20
1. 일본 동경 ‘스가모’ 거리	20
2. 서울 종묘공원	24

제3장 노인집중공간으로서의 제기동 특성

1절. 노인공간으로서 제기동의 형성과정	28
1. 노인 집중현상의 흐름	28
2. 제기동 일대 도시변화의 흐름	30
2절.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의 특성	34
1.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의 거주지와 통행수단	34
2.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40
3절.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들의 활동과 공간특성	47
1. 콜라텍 및 무도교습소	47
2. 노인들을 위한 커피숍 및 다방	51
3. 지하철 승터 및 가로 공간	54

제4장 노인집중현상에 의해 나타난 제기동의 도시공간 분석

1절. 멀티플렉스화된 일상-여가 융합 공간	56
2절. 친숙한 사회적 교류 공간	64
3절. 노인의 소득수준에 최적화된 소비 공간	68

제5장 결론

연구의 요약 및 연구의 한계	73
[참고문헌]	76
[부록]	80
[Abstract]	82

표 목차

[표 1-1] 제기동 일대 상업시설 운영자 인터뷰	7
[표 1-2] 제기동 일대 노인일상여가활동공간 운영자 인터뷰	7
[표 1-3] 연구의 흐름도	8
[표 2-1] 노인 지역별 교육수준 분포	11
[표 2-2] 노인 일상여가활동 공간 선행연구 고찰	17
[표 2-3] 외출 시 노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18
[표 2-4] 노인 접근 유발요인	20
[표 3-1] 1~9호선 지하철 하차 수와 경로비율	30
[표 3-2] 노인들이 제기동을 방문하는 목적	40
[표 3-3]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들의 이용 교통수단	41
[표 3-4] 방문하는 노인들의 연령대	41
[표 3-5] 제기동에 방문하는 노인들의 방문 빈도수	42
[표 3-6]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동거형태	42
[표 4-1] 제기동 일대 멀티플렉스 공간의 프로그램 현황	59
[표 4-2] 제기동 일대 멀티플렉스 공간의 프로그램	60

그림 목차

[그림 1-1] 서울 도심부에 위치한 동대문구 제기동	3
[그림 1-2] 지하철 1-9호선 무임하차비율	4
[그림 1-3] 연구 대상지	5
[그림 1-4] 설문조사 시행 위치	6
[그림 2-1] 각 지하철역 별 노인하차비율	19
[그림 2-2] 일본 동경 스가모 지조도오리 상점가	21
[그림 2-3] 스가모 지조도오리의 신사참배와 쇼핑거리 모습	22
[그림 2-4] 스가모 거리의 상점가 모습	23
[그림 2-5] 종묘공원 노인들의 모습	24
[그림 3-1] 지하철 1호선 노인 승객 주요하차 역과 1일 하차 인원	28
[그림 3-2] 제기동 일대의 시장 분포	31
[그림 3-3] 1990년대 초반 약령시장 일대 모습	31
[그림 3-4] 청량리시장 재정비사업으로 인해 생긴 변화	32
[그림 3-6] 제기동 일대를 방문하는 노인의 유입 비율	35
[그림 3-5]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의 거주지 분포	36
[그림 3-6] 제기동 일대를 방문하는 노인의 유입 비율	36
[그림 3-7]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들의 거주지 비율(서울시)	37
[그림 3-8]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들의 거주지 비율(경기도)	37
[그림 3-9] 2015년 제기동역 노인들의 집중 통행 시간대 분포	38
[그림 3-10] 시간대별 제기동역 모습	39
[그림 3-11] 방문하는 노인의 성별 분포	41
[그림 3-12] 방문하는 노인들의 최종학력	43
[그림 3-13] 방문하는 노인들의 은퇴 전 직업	44
[그림 3-14]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의 용돈	44
[그림 3-15] 콜라텍에서 즐기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	47
[그림 3-16] 제기동의 콜라텍 및 무도교습소 공간 현황	48
[그림 3-17] 콜라텍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들 인터뷰	50

[그림 3-18] 노인들로 북적이는 제기동 일대의 다방	51
[그림 3-19] 제기동 일대의 다방 현황	53
[그림 3-20] 노인들의 일상공간인 제기동역 지하철 쉼터	54
[그림 3-21] 노인들의 일상여가공간인 제기동역 가로공간	55
[그림 4-1] 제기동의 멀티플렉스 공간 내부 평면도	61
[그림 4-2] 공연을 보며 식사하는 노인들의 모습	62
[그림 4-3] 콜라텍에서 춤을 추는 노인들의 모습	63
[그림 4-5] 콜라텍 식당에서 사회적 교류활동을 하는 노인들	67
[그림 4-6] 제기동 일대 식당에서 여럿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	69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현대사회의 가장 큰 당면과제로 고령화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노인인구의 비중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2018년에는 그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를 뛰어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¹⁾ 또한 UN의 세계인구 통계에 따르면 2050년에는 40.1%로 노인인구가 거의 절반이 될 것이다.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노인들의 활동관련 서비스 제공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1984년도부터 시행된 ‘경로우대’라는 무임승차제도의 사회적 혜택을 받으면서 노인의 이동성은 이전보다 증대되었다. 이를 통해 최근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제약을 덜 받기 시작하였으며, 여가를 위해 보다 많이 이동하게 되었다. 노인들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을 찾아 나서면서 특정 도시공간에는 노인집중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기동, 청량리, 종로3가, 종로5가역 등에서 노인들의 점유도 및 노인들의 통행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젊은 계층과는 또 다른 양상의 노년층 공간점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때 노인들은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고 지하철이 무료라는 이유로 종묘공원에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바둑을 두면서 그들의

1)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장래인구추계, 2014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aging) 사회, 14~20% 미만인 사회를 고령(aged) 사회, 그리고 고령인구 비율이 20%이상인 사회를 초고령(super-aged) 사회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1956년에 발표된 UN 보고서에서 7% 이상인 사회를 고령(aged)인구 사회로 분류하였을 뿐이며, 세 단계의 분류와 그 기준치는 일본 학계에서 임의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이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 (최성재·장인협, 2010:11)

외로움을 달래며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정유선, 2013). 이처럼 노인들이 하나 둘씩 종묘공원 및 탑골공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종로 3가 일대에는 노인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2년 탑골공원의 성역화사업과 2007년 종묘공원의 재정비사업²⁾이 시행되면서 노인들의 휴식공간은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다른 곳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었으며 노인들의 집중현상은 종로 3가 일대에서 다른 지역으로 영역이 확장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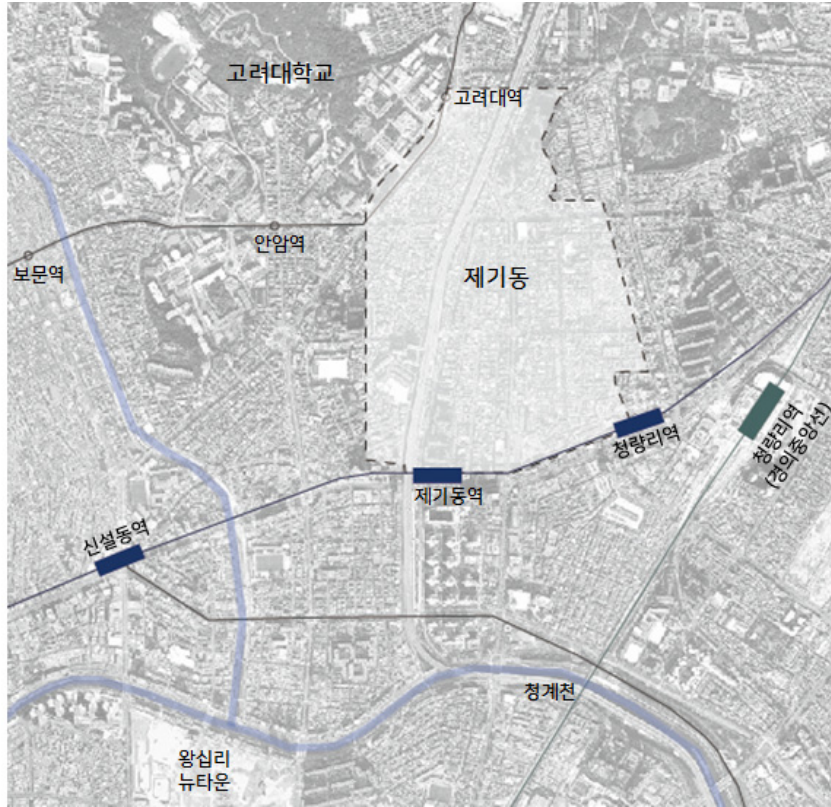
2. 연구의 목적

집중현상에 의해 나타난 도시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연남동, 가로수길, 홍대와 같이 주 소비계층에 대하여 다뤄졌으며, 이는 소비계층의 집중적 현상에 의해 도시공간의 물리적 특징들(건축물의 신축 또는 용도변경)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인은 주 소비계층이 아니므로 돈과 결부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도시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노인들은 싼값에 그들의 근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물리적 특징들이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들의 집중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제기동의 도시공간특성을 밝히고 또 어떠한 노인들이 이러한 도시 공간을 선택하고 이용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노인들의 라이프 사이클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를 통해, 21세기의 노인들이 선호하는 일상여가공간의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향후 노인들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도시공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원하는 도시공간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노인의 여가장소 및 노인 친화적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2) 탑골공원을 독립운동 성역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자 2002년 탑골공원 성역화사업이 시행됨. 종묘공원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종묘 주변이 너무 무질서하다는 지적이 시민들 사이에서 잇따르면서 2007년 종묘공원의 재정비사업이 시행됨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대상지 선정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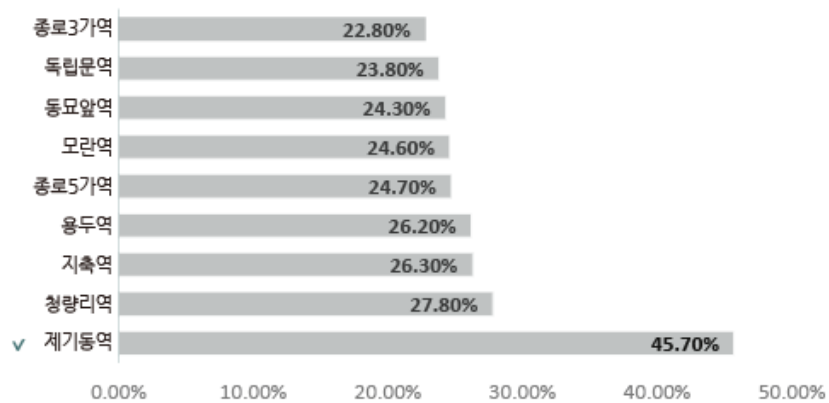


[그림 1-1] 서울 도심부에 위치한 동대문구 제기동

본 연구는 노인의 집중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도시 공간적 특징을 밝히고자 서울 도심부에 위치한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를 살펴본다. 서울 제기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대문구 제기동은 서울 약령시장, 경동시장, 청과물시장, 수산시장 등 전통재래시장의 밀집지역이다. 시장은 노인들의 접근성이 높은 요인으로 재래시장이 위치한 지역에는 노인들이 밀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도희 외, 2008). 따라서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젊은 계층의 사람들 보다는 전통적인 분위기 및 전통적 생활방식의 시장을 선호하는 노인계층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다.

둘째, [그림 1-2]와 같이 2014년 노인들의 지하철 이용 통행량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제기동역이 지하철 1~9호선 무임하차기준 경로비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인들의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제기동은 노인들을 위한 일상여가활동공간이 도시공간 속에서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지역 정체성 또한 기존의 한약재시장에서 노인여가활동 장소로서 변모되고 있다. 따라서 제기동에서 나타나는 노인의 여가활동 공간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공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2] 지하철 1-9호선 무임하차비율 (2014, 경로비율)
 자료: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 지하철 승하차 비율 재구성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제기동역을 중심으로 재래시장과 노인의 여가활동 공간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범위를 UN에서 지정한대로 만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자 하였으며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들의 계층이 일반 노인 전체 계층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 대상의 범위를 한정시켰다.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들은 상위층과는 다른 양상을 띠며 이는 특정 노인의 소득이나 학력 등 개인적인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하기 보다는 범위를 한정시켜 살펴보았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노인들의 활동반경과 전통재래시장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제기동역에서부터 청량리역까지의 영역을 설정하였다. 특히, 큰 대로변에 인접하면서 노인들의 일상여가활동 공간이 분포해 있는 영역을 지정하였다. 연구의 구체적 대상지는 [그림 1-3]과 같다. 또한, 본 연구 대상인 노인의 범위는 지하철 무임승하차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3] 연구 대상지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첫째, 특정계층의 집단현상에 관련한 선행연구 및 보고서를 활용하여 문헌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제기동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뉴스 기사를 과거시점부터 검토하였다. 또한 노인들의 집중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철 이용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들의 주 목적지를 파악하며 노인들의 활동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약 7일간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 총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제기동을 방문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시행하는 위치에 따라 노인들의 목적공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제기동 일대의 여러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위치는 다음과 같다. 노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역 제기동역, 청량리역과 노인들이 여가활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장거리, 콜라텍, 다방, 기원 등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는 노인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들이 무엇을 위해 방문하며 또 노인들은 어디서부터 유입되는지 왜 제기동의 공간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그림 1-4] 설문조사 시행 위치

셋째,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을 분류하였으며 지도에 기록하였다. 또한 노인들이 이 공간을 왜 선호하며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장관찰조사 방법과 인터뷰를 병행하여 진

행하였다. 1차 인터뷰는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차 인터뷰는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인터뷰는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식당, 다방, 콜라텍, 시장, 지하철역 쉼터 등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와 현장관찰조사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노인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노인집중현상으로 나타난 도시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표 1-1]과 같이 제기동 일대에서 장기간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5명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는 노인집중현상으로 인해 주변에 나타나는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표 1-1] 제기동 일대 상업시설 운영자 인터뷰

업주 인터뷰	이름	나이	성별	업종	운영기간
상업시설 운영자	이○○	62세	여	식당	7년
	박○○	64세	남	식당	11년
	한○○	52세	여	호프집	13년
	박○○	65세	남	시장	35년
	김○○	66세	여	옷가게	5년

[표 1-2] 제기동 일대 노인일상여가활동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 인터뷰

업주 인터뷰	이름	나이	성별	업종	운영기간
일상여가활동 공간 운영자	김○○	51세	여	콜라텍	9년
	문○○	52세	남	콜라텍	11년
	최○○	45세	여	콜라텍	3년
	김○○	72세	남	댄스학원	4년
	정○○	52세	여	다방	10년
	김○○	50세	여	다방	9년
	이○○	69세	남	기원	5년

마지막으로, [표 1-2]와 같이 노인들에게 일상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주인 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는 제기동이 노인 집중공간으로서 자리매김 하게 된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집중현상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노인밀집에 의해 나타나는 도시공간의 특징을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도시공간에 나타나는 공간적 특징을 도면화하여 시각화하였다.

3절 연구의 진행과정

연구 과정	연구의 내용	연구 방법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흐름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노인의 정의 및 특성 노인의 일상여가활동 공간 및 통행 특성 도시의 노인집중공간 사례연구	문헌연구
제3장 노인집중공간 으로서의 제기동 특성	노인공간으로서 제기동의 형성 과정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의 특성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의 활동 및 공간특성	문헌연구 현장조사 설문조사
제4장 노인집중현상에 의해 나타난 제기동의 도시공간 분석	멀티플렉스화된 일상여가 융합 공간 친숙한 사회적 교류 공간 노인의 소득수준에 최적화된 소비 공간	현장조사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제5장 결론	연구의 종합 및 향후 연구과제	

[표 1-3] 연구의 흐름도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절 노인의 정의 및 특성

1. 노인의 정의

노인은 사전적 의미로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상황들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노인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내리기는 어렵다.

노인은 누구를 지칭하는가에 대한 정의는 법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노인의 연령 범위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다. UN에서는 노인을 65세³⁾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사회 및 고령화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제도로 상으로 노인복지법에서는 연금의 수혜자가 65세 이상인 반면, 국민연금법 수혜대상 및 고용촉진법에서 권고하는 평균정년은 60세로 규정하고 있다(이구석, 2009).

국제노년학회(1951)⁴⁾에 따르면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서 결핍이 있는 사람, 둘째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셋째 인체기관, 조직기능 등에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넷째 생활 자체의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 되어 가고 있는 사람, 다섯째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조미정, 2014). 즉, 노인은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최성재 외, 2006). 이는 신체적 나이 외에도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 상실 등을 고려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3) 1889년 독일 비스마르크에 의해 제정된 연금보험의 수혜자격 연령을 65세로 규정하였다.

4) 1951년 미국에서 열린 제 2회 국제노년학회

2. 노인의 특성

고령화사회가 되어가면서 노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노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노인의 특성이 급격히 변해가고 있어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노인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출간하는 노인실태보고서를 참고하여 노인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도시지역 거주비율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후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노인의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가치관의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노년기의 대표적인 거주형태가 자녀동거에서 단독가구로 변화하였다.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⁵⁾ 결과와 비교해보면 자녀동거가구가 27.3%로 급감한 반면 노인 단독가구는 68.1%로 급증하였고 전통적인 노년기 거주형태인 기혼자녀가 노부모를 모시고 생활하는 형태는 약 11%에 불과하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노인이 종사하는 직종이 대부분 농어업이나 단순노무직처럼 은퇴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임금수준이 낮다는 한계를 갖고 있고, 사교단체/친목단체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자원봉사 참여 경험비율이 아직 10%대에 머물고 있으며, 평생교육의 경우도 5%를 조금 넘어선 수준으로 아직도 다양한 여가 및 사회활동이 미흡한 상태이다.⁶⁾

2014년 6월 11일부터 9월 4일 기간 중 975개 조사구의 65세 이상 10,451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노인의 일반특성을 살펴본 결과, 노인들의 지역거주 분포가 동부 76.6%, 읍·면부 23.4%로 나타났다.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17.8%, 부산 7.5%, 대구 4.6%, 인천 4.5%, 광주 2.5%, 대전 2.4%, 울산 1.5%, 경기 19.2%, 강원 4.0%, 충북 3.7%, 충남 5.5%, 전북 5.1%, 전남 6.0%, 경북 7.4%, 경남 7.0%, 제주 1.3%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는 노인독거가구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1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p21-22, 2014

23.0%, 노인부부가구 44.5%, 자녀동거가구 28.4%, 기타가구 4.0%이다. 노인들의 가구형태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노인부부가구형태(72.5%)이며, 무배우자의 경우 노인독거가구(58.7%) 아니면 자녀동거가구(36.5%)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아니면 혼자 독거하는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의 교육수준은 [표 2-1]과 같이 무학(글자 모름) 9.6%, 무학(글자 해독) 20.9%, 초등학교 32.0%, 중·고등학교 29.8%, 전문대학 이상 7.8%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교육수준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31.5%)와 읍·면부(33.7%) 모두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중학교 이상의 학력은 동부 41.7%, 읍·면부 23.6%로 동부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⁷⁾

[표 2-1] 노인(65세 이상) 지역별 교육수준 분포

구분		무학 (글자모름)	무학 (글자해독)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이상
지역	동부	7.8%	18.9%	31.5%	14.0%	18.9%	8.8%
	읍·면부	15.5%	27.3%	33.7%	10.3%	9.0%	4.3%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재구성

이와 같이 노인들의 특성은 교육수준, 가구형태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령화사회가 되어가면서 노인이 급증하였고 노인의 특성 또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절 노인의 일상여가활동 공간 및 통행특성

1. 노인 일상여가활동 특성 및 공간

노인들이 은퇴 후 자신에게 부여된 일정한 역할이 없어서 막연하게 보내는 긴 시간동안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 노인들은 어떠한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보내는지 살펴보고자 노인의 일상여가활동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p99-106, 2014

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일상생활 또는 여가형태를 보면 대체로 라디오 청취, tv 시청, 집안일, 손자, 손녀 돌보기 등 가정 내에서 혼자 소일하거나 친척, 친구 방문 등 단순 모임이나, 장기, 화투, 자익, 바둑 등 소극적으로 여가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김인기, 1999). 가정 밖의 여가형태는 동년배들과 노인정이나 공원에서 세상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바둑, 장기를 두면서 시간을 보내는 형태, 노인학교나 사회교육기관에 다니며 교양강좌를 듣거나 노래나 춤을 추며 건강관리를 하는 형태 등 다양하게 구분된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노인들은 이처럼 가정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박종천, 2010).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면서 현재 노인여가활동의 형태는 경험이나 지식이 필요한 여가활동 보다 건강과 친교를 쌓는 형태의 여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교 목적의 여가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노인의 일상여가활동은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노인들의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연령, 경제수준,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등 노인의 일상여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여가활동의 참여율은 감소하게 된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율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이가옥 외, 1994; 이영선, 2012). 연령의 증가에 따라 모든 여가활동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여가활동의 영역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인들은 신체적 제약이 생기면서 동적인 활동보다는 정적이 활동을 주로 하게 되며 가정 밖에서 하는 활동보다는 가정 내에서 하는 활동을 더 선호하게 된다(이선미, 1991). 하지만 최근에는 100세 시대가 되어감에 따라 그들의 신체적 건강은 전 세대의 노인들에 비해 건강하며 보다 더 활동적이게 되었다. 따라서 노인들은 가정 밖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을 찾기 시작한다. 또한 친교를 목적으로 주로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경제수준 또한 노인의 일상여가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수준을 직

업의 유무, 수입과 용돈, 자산수준 등으로 나뉘 볼 수 있다. 경제수준이 낮은 계층은 여가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며, 여가를 즐길만한 심리적 여유도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저소득층 노인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고 공간상 이동의 불편함이 없는 tv시청, 화투, 장기 등의 오락을 즐기는 비율이 일반 노인보다 높은 편이다(박재간, 1996; 정유선, 2013). 하지만 최근에는 무임하차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노인들 또한 더 활동적인 여가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노인들은 그들의 생계비로 식비, 여가활동비 등을 모두 해결하고자 싼값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가활동장소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노인들은 공원에서 무료 급식 또는 저렴한 식사를 하며 하루를 공원에서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탐골공원이나 종묘공원에는 노인들의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3년 11월 5일 연합뉴스의 한 기사는 탐골공원과 종묘공원에서 나타나는 노인들의 모습을 묘사하였다.⁸⁾

“수도의 심장인 소위 ‘블링 블링’한 거리 모습을 가진 광화문과 종각에서 5분만 걸어 탐골공원 쪽으로 가면 거리의 모습은 보도블록의 색깔부터 어두워진다. 건물과 골목의 벽은 얼룩이 묻은 회색빛이다. 보행자 중에 젊은 연령층은 찾아보기 어렵고 행인 대부분은 60-70대 고령자들이 단조로운 점퍼 차림에 무표정한 모습이다. 대로변 주위는 물론이고 골목의 가게나 식당 안으로 들어서면 분위기는 더 칙칙하고 지저분해진다. 공원 주변의 노인센터에는 벌써 몇 년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일찍부터 무료 급식을 기다리는 고령자들이 줄을 늘어서 항상 장사진이다. 주변의 거리 벤치와 뒷골목에는 거동이 느린 수많은 남성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장기를 두거나 잡담하고, 홀로 신문을 보거나 멍하게 생각에 잠겨 있다.”

교육수준은 노인의 일상여가활동 참여에 유용한 변수로서 작용하는데 이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 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또한, 높은 교육수준은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화의 기회를 높게 함으로써 여가활동

8) 최기억, ‘종로3가 가난한 노인들의 천국’, 연합뉴스포맥스, 2013.11.05

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할 가능성을 높인다(박종천, 2010). 또한 교육수준은 노후소득 등의 경제적 자원,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크기와도 정비례하고 있었다. 또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장소로써 가까운 곳 보다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좋은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익기, 1999; 정유선, 2013). 이밖에 노인의 여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거주형태, 종사했던 직업, 자녀와의 교류, 라이프 스타일 등이 있다.

또한 배우자의 유무가 노인의 일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이 많지만 배우자를 상실한 경우에는 개별 여가시간이 증가함과 동시에 심리적 외로움, 역할 상실감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다(정유선, 2013). 따라서 배우자를 잃은 노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의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인들의 일상 여가활동 공간 중 콜라텍 또는 다방의 공간으로 설명될 수 있다. 최근 노인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껴 새로운 사회활동을 통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콜라텍을 많이 찾고 있다(김우석, 2015).

배우자의 유무뿐만 아니라 동거가족형태 또한 노인의 일상여가에 영향을 미친다.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동거가족형태가 많이 변화되었지만 아직도 노인들의 대부분이 노후생활을 자녀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부부들이 손자, 손녀를 돌보거나 집 보기, 가사노동 등을 하며 여가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 동거가족형태는 노인의 여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영선, 2012).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전국의 경로당 수는 63,251개소에 달한다.⁹⁾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이용하는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유로 친목도모가 85.5%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중 식사서비스를 위해서가 6.6%, 여가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9) 2014년 노인실태조사보고서(노인 2,663을 대상으로 조사), 보건복지부, 2014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로당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공간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경로당 이용에 불만족하는 노인의 경우 그 이유로는 ‘이용노인과 맞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로당에 대한 불만은 도시 중산층 노인들로부터 많이 지적되었다. 임춘식(1996)에 의하면 경로당은 매우 협소한 공간으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여러 제약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로당이 노인들의 휴식처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여가시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거주 인근지역에 경로당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그들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으며 노인들은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노인들의 일상여가활동 특성을 기반으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분류하여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표 2-2]와 같다.

남궁금순(2008), 이정규(2014) 연구에 의하면 경로당은 대부분 높은 연령대의 노인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75세 미만의 초기 노인에 비해 75세 이후의 후기 노인들의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태숙(2002)에 의하면 경로당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인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노인들의 요구에 맞는 여가프로그램들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는 경로당이 매우 협소한 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기에는 한계가 있다(임춘식 외, 2006). 또한 경로당은 취사가 허용되지 않는 공간으로 식사는 다른 곳에서 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한 점이며 하루 종일 머무르는 공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이윤경, 2013). 또한, 경로당에 가면 노인들끼리 나이로 서열을 따져 피곤해 경로당을 선택하기 보다는 심리적으로 편한 공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¹⁰⁾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정작 모이는 곳은 탑골공원과 종묘공원 등 10년 전이나 다를 것이 없다.¹¹⁾ 이러한 노인들의 반응에 따라 노인들은 오히려 공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10) 김경민, ‘종묘광장 성역화사업 5년_공간 줄고 여성 비중 늘고’, 주간조선, 2012.08.20

11) 이현지, ‘갈 곳 없는 노인들: 복지시설은 늘어도 서비스는 제자리’, 시사매거진, 2006.10.19

[표 2-2] 노인 일상여가활동 공간 선행연구 고찰 (노인활동과 관련된 주제)

공간분류	연구자	연구 내용	공간의 성격
경로당 (노인정)	이윤경 (2013)	경로당의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정책과 제로 제시. 경로당의 이용현황은 도시 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취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 잠시 머무르는 공간
	임춘식 외 (2006)	경로당의 노인 이용현황을 파악하며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제시	협소한 공간 프로그램의 한계가 있는 공간 노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공간
	남궁금순 (2008)	경로당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	80세 이상의 여가 공간 여가프로그램 부족 공간
	조태숙 (2002)	경제적 여유의 부족과 여가시설의 부족의 문제점을 제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인의 공간
	이정규 외 (2014)	실제 경로당 노인 이용자들의 니즈 분석과 경로당 유형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제안	높은 연령대의 여가 공간 (75세 이후의 노인들 이용)
	이삼순 (2014)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하여 규명하였으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만족도를 분석	친교의 공간 심리적 안정을 주는 공간
공원	이구석 (2009)	노인집중현상이 나타나는 탐골, 종묘공원에서 노인의 여가활동을 파악하며 특성 분석	접근성이 높은 공간 다양한 프로그램 지닌 공간
	정유선 (2013)	종묘공원의 이용자 특성을 관찰하고 공원방문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	다양성의 공간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 동류집단의 공간
	주요택 (2010)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외면하고 공원을 방문하는 노인들의 특성과 여가 행태 등을 분석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 (타인의식이 필요하지 않음)
	김소진 (2009)	종로공원이라는 노인집단문화지역 속 노인들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노인복지 실천의 시사점을 제시	하위집단 형성의 공간 우월적 권력의 공간 의례의 공유의 공간 유대감 형성의 공간
무도장 콜라텍	김지현 (2014)	노인여가공간으로서 콜라텍의 의례행위 관찰하며 노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노인여가공간의 필요성을 제기	오픈된 공간 친교의 공간
	김우석 (2015)	노인들에게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콜라텍의 물리적 사회적 공간에 대하여 분석콜라텍을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의미로서 연구	운동의 공간 사교의 공간 일탈의 공간

공원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공원에서 만큼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며, 동류진단의 공간으로 교류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탑골공원이나 종묘공원은 종로3가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환승역으로 접근성이 좋다(이구석, 2009). 또한 김소진(2009) 연구에 의하면 종로공원은 유대감 형성이 가능한 공원이라고 언급하였다.

공원 이외에도 최근 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콜라텍은 서로 오픈된 공간으로 자율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상호작용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친밀한 유대감에 의하여 결합된 친교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김지현, 2014). 콜라텍의 공간은 외로운 노인들의 집합공간이라고만 보기 어려우며, 이는 운동의 공간, 사교의 공간, 일탈의 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콜라텍은 운동의 공간으로서 노인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춤을 추고 일상 속에서는 신체적 한계로 인해 하지 못했던 것을 음악과 춤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는 운동하는 공간에서 더 나아가 치료의 공간이라는 체험적 의미를 두고 있다. 춤을 통해 운동을 하고 그 운동을 통해서 심리적, 생리적으로 치료가 되고 있음을 참여자가 경험하고 있다. 둘째, 사교의 공간으로서 노인들은 사회로부터 얻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서로를 위로하며 상호작용하고 콜라텍이라는 공간 안에서 만남을 통해 사회적 공간의미를 경험하고 있다. 셋째, 콜라텍은 일탈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일상에서 노인은 단지 힘이 없고 활동력이 떨어진 사람으로 의식되지만, 콜라텍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춤을 추면서 남의 부정적 시선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즐거움에 집중한다. 이것은 노인들에게 있어서 긍정적 일탈이라 할 수 있다(김우석, 2015).

선행연구들을 통해, 노인들의 일상여가활동이 다양한 공간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노인들의 일상공간은 경로당, 공원, 콜라텍 등으로 나타났다. 각 공간마다 부여하고 있는 특징은 달랐으며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노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또 어떤 성격의 공간을 선호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2. 노인 일상여가활동을 위한 통행특성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이동흐름과 노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의 통행 패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표2-3]과 같이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48.2%), 지하철(21.2%), 자가용(20.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노인들의 주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버스(44.3%), 지하철(27.1%) 순이었으며, 읍·면부는 버스(60.9%), 자가용(24.3%) 순으로 나타났다.¹²⁾ 노인들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지하철이 없는 읍·면부에서는 주된 교통수단이 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대중교통 수단 중 버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동부만 놓고 보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율이 27.1%로 읍·면부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었다. 이는 도시 인프라 구축 차이에 따라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2-3] 외출 시 노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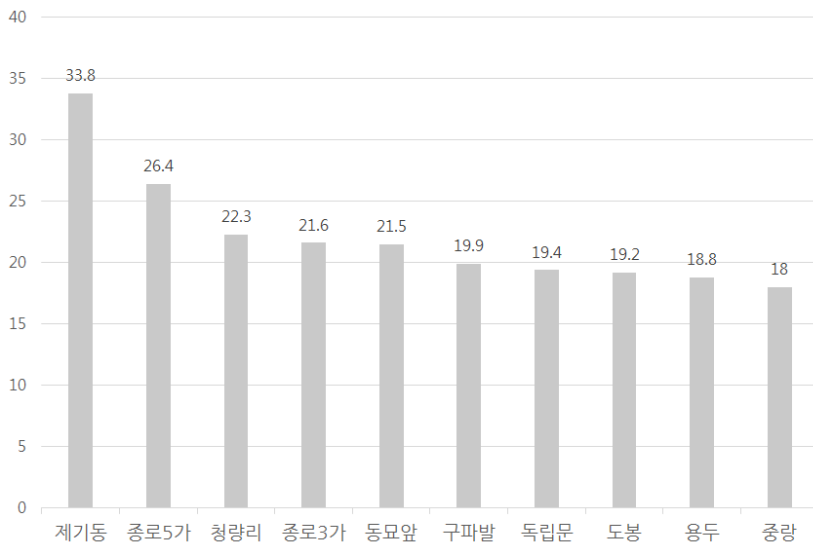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자전거	오토바이	기타	계(명)
전체		48.2%	21.2%	6.3%	20.0%	1.7%	2.0%	0.6%	100.0% (10,451)
지역	동부	44.3%	27.1%	6.6%	18.6%	1.9%	0.8%	0.6%	100.0% (8,008)
	읍면부	60.9%	1.8%	5.6%	24.3%	1.1%	5.8%	0.5%	100.0% (2,443)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재구성

노인들의 통행목적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가 목적의 통행이 급격히 증가하며, 체험하는 공간적인 다양성은 감소하였다(노시학 외, 2008). 또한 독거 또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의 경우가 부양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보다 통행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통행수단의 경우에는 자가용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버스, 지하철의 이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추상호, 2008). 노인들의 통행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

12) 보건복지부,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노인의 생활환경, p499, 2014

인들이 오전 침두시간대(7시~9시)를 피해 오전 9시 이후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이창훈 외, 2014). 한수경 외 (2015) 연구에서는 서울대도시권에 하차하는 노인들의 대중교통 흐름을 분석하여 노인들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시간 대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오전에는 주로 서울 외곽지역(노원구, 강서구, 은평구, 중랑구 등)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안양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및 인천에서 서울 도심부(중구, 종로구 등)로 모여들었다가 오후가 되면 다시 돌아가는 피스톤 형태의 왕복통행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울대도시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대중교통 통행흐름을 분석한 결과, 서울 및 서울에 인접한 경기,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통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의 행동반경이 거주지 인근지역에 한정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노인의 통행반경이 상당히 넓음을 의미하며 노인들의 유입통행 목적지는 서울시 일부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들의 통행 목적지는 젊은 계층과 유사하게 도심이나 강남지역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수경 외, 2015).



[그림 2-1] 각 지하철역 별 노인하차비율(2005-2007년, 3년 연 누계)

자료: 이도희(2009) 재구성

대중교통시스템의 확충으로 활동범위가 넓어진 노인들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 이도희(2009) 연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총 하차인원 대비 경로우대비율을 환산하여 지하철역 별 노인하차비율 순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 2-1]과 같이 나타났으며 제기동역, 종로5가역, 청량리역, 종로3가역, 동묘앞역이 노인하차비율 20%를 넘는 역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유인요소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표 2-4]와 같이 나타난다. 노인 접근 유발 요인으로는 산, 하천, 공원, 재래시장, 한의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있다(이도희, 2009).

[표 2-4] 노인 접근 유발요인

주요 유인 요소	패턴	역명
하천 (청계천+종로일대)	하천+공원+재래시장+한의원	종로5가
	하천+공원+재래시장	종로3가/동묘앞
	하천+재래시장	용두/을지로4가/신당
산	산	구파발/도봉/독바위/무악재/도봉산/양원/불광/일원
	산+재래시장	홍제/당고개/마천
재래시장	재래시장	미아/녹번/영등포시장/구산
	재래시장+한의원+하천	신설동/동대문/제기동
	재래시장+공원	금호
	재래시장+터미널	청량리
역사유적 및 전통문화	역사유적+전통문화+노인복지시설	안국

자료: 이도희(2009) 재구성

3절 도시의 노인집중공간 사례연구

1. 일본 동경 ‘스가모 지조도오리’ 거리

‘노인의 천국’, ‘노인들의 하라주쿠’ 라고 불리는 스가모 지조도오리 상점가는 도쿄역(東京驛)에서 전철로 20분쯤 거리에 있는 도시마(豊島)구에 위치해 있다. 스가모 상가는 일본 정부나 도쿄시가 예산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거리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모여 들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재래시장이다.¹³⁾ 스가모

13) 김규성, ‘일본 스가모 노인문화의 거리-탑골공원과 스가모 거리’, 시흥시민뉴스, 2013.03.17

상점가는 정부가 만든 노인복지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인집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스가모 상점가를 방문하는 노인은 어떤 특징의 사람들이며 또 이 공간들이 지니는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2] 일본 동경 스가모 지조도오리 상점가
 자료: <http://m.baenang.tourbaksa.com>

(1) 방문 노인들의 일반적 특징

스가모 지조도오리 상점가는 노인들의 장소로 유명한 변화가이다. 조미정(2014) 연구에 의하면 스가모 상점가를 방문하는 노인들의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또한 방문하는 노인들의 연령대는 60대(19%), 70대(58%), 80대(16%), 90대(7%)로 70대 방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스가모에서는 70대-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더 이상 노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따라서 이곳은 시니어가 시니어세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노인들을 위한 테마파크와 같은 곳이다.

스가모 지조도오리 상점가는 교통이 편리한 토시마구에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을 방문하는 노인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 방문객의 가족형태는 부부만 생활하는 경우(42%), 독거인 경우(39%)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방문 빈도수는 월 1회와 주 2-3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거의 매일 방문하는 노인들도 있다(조미정, 2014).

(2) 노인 집중현상의 배경

스가모 상점가를 방문하는 노인들의 목적은 신사참배와 쇼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스가모 거리에는 500년 넘은 사찰이 위치해있으며 이곳은 장수를 기원하는 장소이다.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사찰에 모인 노인들이 상점에 들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인 상점가로 번성하게 되었다. 처음에 이 지역은 개발이 덜 된 상점가였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는 노인들의 집중현상으로 현재 노인들의 중심가로 자리 잡았다. 이곳에는 현재 의류, 생활용품, 약국, 음식점 등 약 200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노인들의 추억의 물품들, 노인들을 위한 가발, 안마의자, 장례기구 등 다양하게 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노인들에게 최적화된 공간과 상품들을 갖추고 있는 스가모 거리는 노인 집중현상이 생기면서 다른 지역의 노인들까지도 흡수하고 있다. 따라서 스가모 거리는 노인들을 위한 대표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3] 스가모 지조도오리의 신사참배와 쇼핑거리 모습
자료: 조미정, 고령화 사회 노인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2014, p.17

(3) 도시공간의 특징 및 변화

고간지 참배 후 스가모 지조도오리 상점가를 방문하는 노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은 거리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사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일본의 요미우리 기사는 1987년 스가모 지조도오리 상점가를 ‘할머니들의 하라주쿠’ 라고 소개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스가모 거리는 노인들을 위한 도시공간으로 변모되었다. 상대

적으로 낙후된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 상점 주인들은 노인들이 선호하는 도시공간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는 현재 노인들의 집중현상의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다. 도시 공간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을 배려한 스가모 도시공간에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으며, 노인들이 드나들기 쉽도록 상점의 문턱이 없다. 둘째,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고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테이블과 벤치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삶을 공유하며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조미정, 2014). 셋째, 스가모 거리에는 간판의 글씨가 매우 크고 노인들이 읽기 쉽도록 한자와 히라가나를 사용하고 있다. 스가모는 교육수준이 다양하게 차이나는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노인들이 한 번에 빨리 읽을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어와 가타카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넷째, 노인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사교, 친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라오케(노래방)는 공간의 구획이 없이 설계되었다. 또한 노인들이 가수의 공연이 길거리에서 열리며 노인들이 선호하는 음반들의 매장도 곳곳에 위치해 있다. 다섯째, 세련됨보다는 촌스러움이 묻어난 공간들이 즐비해 있다. 변화를 싫어하는 노인들은 과거의 것이 그대로 지속되기를 원하는 심리를 지닌다. 따라서 이곳에는 오래된 건물들과 상점들이 위치해있다.¹⁴⁾



[그림 2-4] 스가모 거리의 상점가 모습
(문턱이 없는 상점과 노인들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벤치들)
자료: <http://ppippi51.tistory.com>

14) ‘노인들의 흥대를 가다’, SBS 뉴스토리, 77회 방영, 2016.02.27

노인집중현상으로 스가모 거리의 맥도날드 또한 노인들에게 적합한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이곳의 주 고객은 노인으로 스가모 거리의 맥도날드에는 노인들을 위한 메뉴가 개발되었으며, 1층은 노인들을 위해 전부 노약자석으로 변경되었다. 노인집중현상이 나타나는 스가모 거리의 다양한 도시공간특징들은 이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쉽게 알려주고 있으며, 노인들이 선호하는 도시공간의 특징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있다.

2. 서울 종묘공원



[그림 2-5] 벤치가 사라져 종묘공원 길거리에 모여 앉아있는 노인들의 모습

자료: 연합뉴스_2011.06.17.

종로 3가와 4가 사이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훈정동 종묘공원은 노인들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 공간이다. 종묘공원엔 많으면 하루 2,000여명의 노인이 찾고 있으며 대부분 65세 이상에게 지원되는 지하철 경로우대권을 이용해 이곳으로 몰려든다. 이들은 공원 근처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바둑, 장기를 두며 오후 5-6시까지 그들의 시간을 보내곤 한다. 종묘공원을 찾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인생의 황혼기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이들이

다. 이는 노인층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종묘공원은 경제적으로 힘든 노인들의 집합공간이라고 여겨진다.¹⁵⁾ 노인집중현상이 나타나면서 종묘공원은 트와일라잇 존(Twilight Zone, 황혼지역)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문화재 관리를 위한 재정비공사와 무질서 단속 때문에 종묘공원에는 노인들의 발길이 크게 줄어들었다. 2015년 11월 10일 기사를 통해 변화된 종묘공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¹⁶⁾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 9시만 되면 수백 명의 노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오전 11시가 넘어도 한적한 분위기이다. 이처럼 지난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공원은 최근 본격적인 재정비공사를 거치면서 노인들의 쉼터가 사라졌다. 따라서 노인들은 그들의 쉼터를 찾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종묘공원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재정비사업으로 인해 공원에서 발생하던 음주와 고성, 폭행, 성매매 등의 위법행위는 단속이 강화된 후 크게 줄어들었다.”

(1) 방문 노인들의 일반적 특징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인 활기찬 미래연구소(2009)에서는 종묘공원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종묘공원을 이용하는 노인 중 90%가 남성이었으며, 일반적 노인세대에 비해 응답자의 46.1%가 중졸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 노인들은 다른 곳에서 해소할 수 있는 문화적 욕구의 해소를 위해 이곳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찾아와 동년배의 노인과 만나 운동, 문화행사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 종묘공원에 머무는 노인들에게 노인전용시설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였을 때, 노인여가문화시설로는 공연장(69.5%), 무도장, 전시관, 영화관, 도서관 순으로 나타났으며 64.5%가 무료이용을 원하고 있었다(서울노인복지센터, 2009).

15) 김경민, ‘종묘의 노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종묘광장 성역화사업 5년’, 주간조선, 2012.08.20

16) 정지웅, ‘노인들 발길 끊긴 종묘공원’, TBS, 2015.11.10

(2) 노인 집중현상의 배경

종묘공원에 노인들의 집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배경은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종묘공원은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장소로 다양한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해 집중현상이 나타난다. 종묘공원은 지하철 3개 노선의 환승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서울 각 지역뿐 아니라 인천, 수원, 의정부, 일산, 군포 등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부터 오는 노인들을 감안해 볼 때 지하철 1호선(인천, 수원, 의정부, 평택, 천안까지 연결)이 통과한다는 것은 매우 큰 요소가 될 수 있다.

둘째, 경제적인 부담이 덜한 장소로 종묘공원 근처에서는 무료급식과 저렴한 가격의 식당들이 운영되고 있다. 식사뿐 아니라 이 일대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점상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노인집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셋째, 노인들이 놀기 좋다는 소문이 퍼져 있는 장소로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알려져 왔다. 그런 소문이 퍼짐으로써 더 많은 노인들이 모이게 되고 차츰 노인들이 편안하게 상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노인들을 모이기 위해 애써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도 않았으며 서비스가 제공되지도 않았다. 노인들이 탐골공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사실은 이곳에서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이라든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노인들이 모여 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넷째, 종묘공원은 노인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장소이다. 실내든 야외든 노인들이 모이는 다른 장소와 종묘공원 일대를 비교했을 때 이 지역이 갖는 특징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노인들이 이 지역을 좋아하고 또 찾는 이유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즉 노인 냄새를 맡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만큼 사람의 종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지역을 찾는 노인들은 연령, 고향, 거주지, 주거 형태, 경제력, 취향 등이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같은 또래의 사

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고향이나 지방 출신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 대화를 하는데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의 폭이 매우 넓다. 또한 노인이 많기 때문에 노인 취향에 맞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나이가 들면서 느끼게 되는 허무감이나 허탈감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지만 공원에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거나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또한 종묘공원에 노인이 모이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할 수 있다(적야천심, 1999).

(3) 도시공간의 특징 및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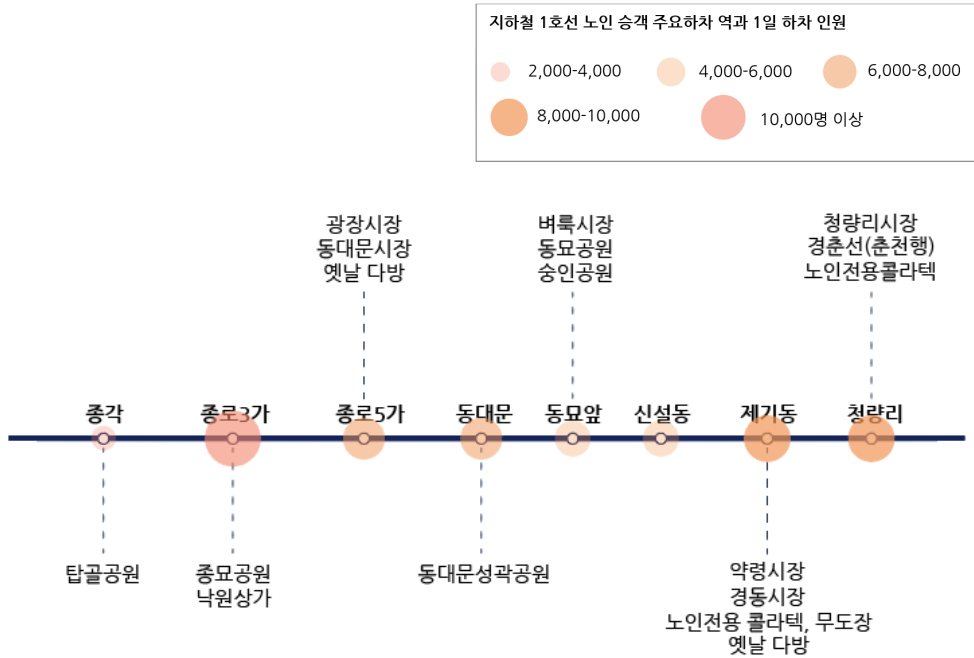
노인집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종묘공원의 도시공간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노인들에게 있어 종묘공원은 바둑을 두고 서예를 쓰고,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다. 시간이 많은 노인들이 이곳으로 많이 모이다보니 다양한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격의 공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종묘공원에서는 노래, 도박, 성매매 등 다양한 행위가 일어난다. 그러나 2007년 종묘공원은 재정부 사업으로 공원 내 일부 매점이 철거되었으며 녹지 둘레에 펜스가 설치되었다. 종묘 매표소 동쪽에 있던 노인 무료 급식소는 사적지 경관에 문제가 제기되며 서울노인복지센터 등 인근 복지센터 세 곳으로 분산 이전되었다. 또한 종묘광장에 음성적 색채를 더했던 불법 도박·성매매에 대해서는 경찰과 종로구청의 단속이 강화되었으며 이동식 노래방 소음에 대한 주변 상인들의 민원에 노래방 기기 또한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종묘공원에는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바둑·장기와 시국토론으로 제한되었다.¹⁷⁾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사라지면서 최근 노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는 사라지게 되었고 이전보다 노인들은 많이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종묘공원은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여전히 모이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노인집중현상이 나타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17) 김경민, '종묘의 노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종묘광장 성역화사업 5년', 주간조선, 2012.08.20

제3장 노인집중공간으로서의 제기동 특성

1절 제기동에 대한 이해

1. 노인 공간집중현상의 흐름



[그림 3-1] 지하철 1호선 노인 승객 주요하차 역과 1일 하차 인원

자료: 세계일보(2016.03.19.) 재구성

1984년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하차제도¹⁸⁾가 도입됨에 따라 노인들은 그들의 하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를 향유하기 위해 찾아온 노인들은 [그림 3-1]과 같이 지하철 1호선 라인으로 노인집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종로3가 일대에는 노인들의 성지인 탑골공원 및 종묘공원, 낙원상가 등이 위치해

18)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국무회의 결과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요금 50% 할인 제도로 시작되었음. 1년 뒤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노인 연령이 65세로 낮춰졌음. 1984년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정부 주도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인 지하철 요금 할인율이 조정되어 서울시 운행 지하철의 경우 100% 할인이 적용되고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완전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룸. (경향일보 1984.05.23)

있으며 종로5가에는 광장시장, 동대문시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동묘앞에는 동묘공원 및 송인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제기동과 청량리에는 재래시장과 노인 전용 콜라텍 및 다방 등이 위치해있다. 이와 같이 지하철 1호선 라인 주변에는 노인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갖추고 있어 노인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노인 집중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던 탑골공원과 종묘공원은 성역화 사업으로 인해 대대적인 재정비사업이 시행되었다. 이는 취객 난동, 박카스 아줌마(일종의 성매매), 미관 훼손 등의 이유로 노인들의 쉼터로 제공되었던 그늘막 및 벤치가 철거되었다. 이로써 탑골공원 및 종묘공원을 이용했던 노인들은 주변 서울 노인복지센터 및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이구석, 2009). 이로 인해, 주변 노인들이 밀집해 있던 지역에 노인들이 더 밀집하게 되면서 노인집중현상이 심화되었다.

한때 종로 일대를 거닐던 노인들은 지하철 1호선 라인을 따라 이동하면서 노인 밀집현상이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지하철 1호선 라인 주변으로 실버벨리가 형성되었고, 이는 종로에서 동대문구 지역까지 확산되어 나타나고 있다.

[표 3-1]은 지하철 1, 2, 3, 4을 관할하는 서울메트로와 5, 6, 7, 8호선을 관할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9호선을 관할하는 민자기업의 서울시메트로¹⁹⁾ 그리고 1호선의 일부와 중앙선을 관할하는 코레일로부터 각 지하철역 별 총 하차 수와 경로우대 무임승차권 소지 하차 노인 수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리한 것이다. 경로 비율 1위를 차지하는 지하철역은 제기동역(45.7%)이며 9위는 종로3가역(22.8%)이다. 한때 기사와 논문들을 통해 이슈화된 종로3가역은 환승역이자 종묘공원과 인접해 있어 노인들이 제일 많이 하차하는 역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지하철 무임하차 비율 중 경로비율을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제기동역은 45.7%로 종로3가역의 2배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19) 지하철 1, 2, 3, 4호선은 서울메트로(구 서울 지하철공사)와 코레일(구 철도청)이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철 5, 6, 7, 8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음. 지하철 9호선은 서울시메트로(구 서울도시철도)로 민자기업으로 운영됨.

목적지가 제기동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 지역은 노인의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1] 1~9호선 지하철 하차 수와 경로비율 (2014년 기준)

역명	총 하차	경로	장애	유공	경로비율
제기동	7,551,526	3,448,457	481,938	32,250	45.7%
청량리 (지하)	11,675,395	3,249,141	636,026	42,714	27.8%
지축	574,889	151,358	33,173	1,156	26.3%
용두	888,580	233,119	49,028	2,393	26.2%
종로5가	10,323,816	2,550,769	466,680	37,899	24.7%
모란	1,351,675	332,520	88,486	3,580	24.6%
동묘앞	7,242,430	1,760,759	467,373	29,418	24.3%
독립문	2,992,429	713,667	135,512	7,955	23.8%
종로3가	22,391,199	5,096,572	1,044,749	101,500	22.8%

자료: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 지하철 승하차 비율 재구성

2. 제기동 일대 도시변화의 흐름

2.1 시장의 형성

[그림 3-2]와 같이 제기동 일대의 시장은 약령시장, 경동시장, 청과물시장, 전통시장, 수산시장 등 5개의 시장이 45만평(150m²)에 다 밀집해있다. 청량리 시장의 개설연도는 1960년 6월이며, 농수산물의 도매나 소매업의 직거래 유통을 하고 있다(조상은, 2013). 한국전쟁 이후, 서울 사람들의 생활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경기도 북부 일원과 강원도 일대의 농민들이 생산, 채취해 온 농산물과 채소 및 수산물이 옛 성동역(미도파백화점 자리)과 청량리역을 통하여 몰려들면서 제기동 일대에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었다. 제기동 일대의 시장은 개설 이후 시내에서 농산물을 골고루 갖추고, 가장 싸게 파는 시장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또한 서울 약령시장은 국내 최대의 한약재시장으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²⁰⁾

20) 강홍빈, 『청량리: 도시건축의 증위와 일상』,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12, p230.



① 약령시장 ② 경동시장 ③ 청과물시장 ④ 건통시장 ⑤ 수산시장

[그림 3-2] 제기동 일대의 시장 분포

자료: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 고지도 1970년대 청량리 일대

제기동 일대 시장 상인의 인터뷰를 통해, 예전부터 제기동 일대에 노인들이 많이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경동시장 및 약령시장이 제기동에 위치해 건강을 생각하는 노인들과 소비가격을 생각하는 노인들이 주로 이 지역을 찾으면서 노인들의 밀집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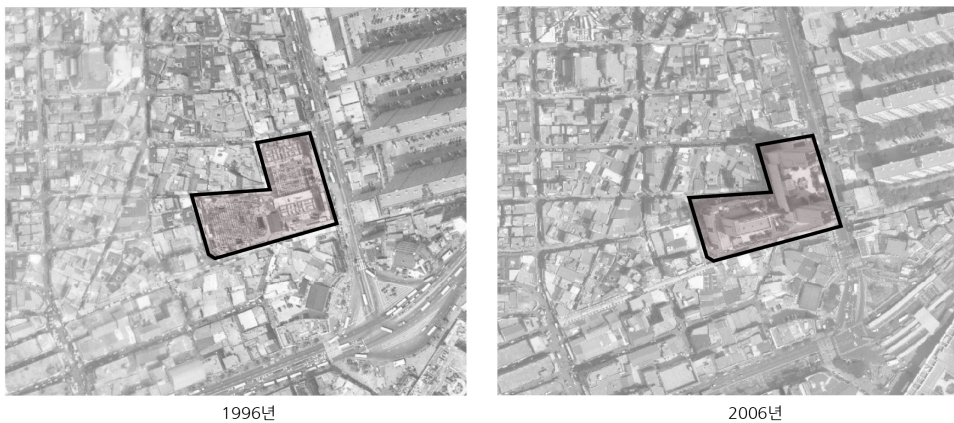


[그림 3-3] 1990년대 초반 약령시장 일대 모습

자료: 서울 역사박물관(2012), 청량리 도시건축의 층위와 일상

2.2 노인들의 여가활동공간의 형성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독거노인의 증가, 소외감이라는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노인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가 생기면서 도시 공간 또한 노인들에 맞추어 변화가 생기고 있다. 제기동 일대에 위치하던 청소년 콜라텍, 성인들의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이 최근 노인들의 공간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콜라텍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술 대신 콜라를 마시며 건전하게 노는 청소년 문화로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공간이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금세 싫증을 내고 떠나자 그 자리를 할 일 없고 돈이 별로 없는 노인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제기동 일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노년층이 많이 접거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청소년을 위해 생겨났던 콜라텍들이 노인전용 콜라텍으로 변질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제기동 내 노인들을 상대로 생겨난 무도장 및 콜라텍의 형성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4년 청량리시장은 큰 화재로 인해 재정비사업이 계획되었으며 이는 제기동 일대의 도시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²¹⁾



[그림 3-4] 청량리시장 재정비사업으로 인해 생긴 변화
자료: 브이월드 과거 항공사진

[그림 3-4]와 같이 당시 청량리시장은 재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집합건물이 제기동 일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는 시장을 집합 건물로 내부화시켜 현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통식의 재래시장 구조를 원하는 노

21) ‘서울 靑涼里(청량리)시장 재개발’, 매일경제, 1994.03.31

인들과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장사하기를 원하는 노점상들 때문에 새로 지어진 집합건물의 공실률은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약 800평 규모의 집합건물들은 비어 있는 상태로 유지되었고 이에 따라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공간은 시장 주변 집합건물에 들어서게 되었다. 큰 규모의 노인 여가활동 장소가 제기동 일대에 생겨나면서 이와 비슷한 노인의 일상여가활동 공간은 하나 둘씩 추가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²²⁾ 이로써 노인들은 제기동 일대로 밀집하게 되었으며 이는 노인들의 집중현상으로 이어져 나타나고 있다.

2.3 노인의 집중현상에 의해 생겨난 변화

노인의 집중현상으로 인해 도시 공간에 용도 및 업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제기동 일대에는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재래시장과 노인들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옛날 다방들이 준비해 있어 많은 노인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또한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나면서 노인집중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상여가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불법으로 운영되던 카바레 및 무도장은 사라지고 합법적인 콜라텍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 무도장은 체육 시설로서 술을 판매할 수 없는 시설로 지정되어있다. 하지만 무도장들은 노인들에게 술을 판매했으며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불법을 없애기 위해 최근에는 성인텍이라는 노인전용콜라텍 법이 생겨 층을 구분하거나 입구를 달리하여 술 판매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불법으로 운영되던 무도장들이 합법적인 콜라텍으로 바뀌면서 이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되어 현재 순기능을 하고 있다. 제기동 일대에는 노인들의 일상여가공간이 많이 생겨나면서 무도의상 및 잡화 상점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졌으며 무도학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공간인 콜라텍이 멀티플렉스 형태의 공간으로 변화가 생기면서 기존에 준비해있던 기원, 다방 등의 여가공간들이 노인들의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흡수되기 시작하였다. 동대문구청에 자료를 요청하여 제기동 일대의 다

22) 제기동 현대코아 빌딩 동관, 서관 주인 인터뷰

방 폐업 및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1990년 이후 약 30개의 다방이 폐업을 하였으며 현재 2016년에는 약 35개의 다방 및 커피숍이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기원 및 다방 등의 여가공간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제기동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질문) 과거에 비해 노인들의 여가공간에는 변화가 생겼나요? 주변 다방이나 기원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가요?

“콜라텍에 가면 그 안에 커피숍, 호프, 매점, 식당, 댄스교실 등 없는 것이 없어...그러니 누가 돈 내고 다방을 가...? 콜라텍 가는 사람 말고 친구 만날 때나 가지. 안 그래? 예전에는 나도 다방 많이 갔는데 이제는 잘 안가. 내가 여기 제기동 다닌 지 10년이 넘는데 예전에는 다방 정말 많았어. 그런데 요즘엔 많이 없어졌어. 제기동에 노인들이 많은데 다방들이 없어지는 건 아마 콜라텍이나 무도장 때문일거야.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다양해지면서 제기동엔 노인들이 예전보다 더 몰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노인들의 천국이 되었지.”

- 회기동에 거주하는 손씨 할아버지(79세)-

이처럼 최근 제기동은 노인집중현상에 의해 도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제기동 일대에 기존에 존재했던 다방이나 기원들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그 기능을 수용하는 멀티플렉스 공간이 생겨났으며 또 노인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노인들을 위한 상업시설의 업종 변경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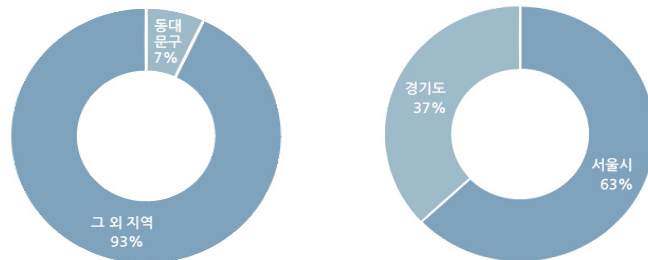
2절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의 특성

1.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의 거주지와 통행수단

지하철 무임승하차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정부로부터 노령연금 20-30만원을 지원받아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교통비는 큰 지출이었다. 따라서 노인들은 멀리 이동하기보다는 집 근처에서 이동하며 경로당에서 시간을 때우는 등 여가생활을 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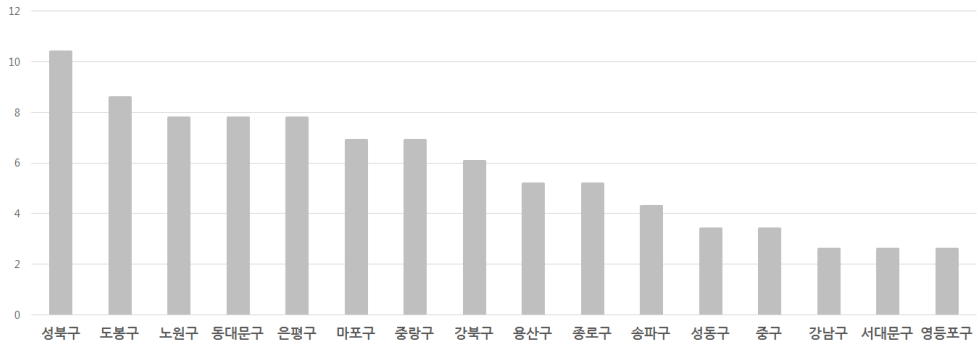
기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무임승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아진 노인들은 그들의 근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여가공간을 찾아 나서면서 노인들의 이동성은 점점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농촌지역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지역에서는 노인들의 이동성이 증가해 특정 도시에서 노인집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하철 무료제도의 영향으로 노인들은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여가활동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주 인근지역 내에서 이동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약 7일간 제기동 일대를 방문하는 노인 180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노인들이 일상여가활동을 위해 어디서부터 이동하는지 거주 지역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제기동 일대를 방문하는 노인들은 서울시 내 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도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 동대문구 내에서 제기동으로 유입되는 노인들은 7%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93%)은 서울시 내 동대문구를 제외한 지역과 경기도에서 유입되고 있었다. 서울시 외곽지역인 경기도에서 유입되는 노인과 서울시 내에서의 유입되는 노인의 거주지 분포는 [그림 3-5]와 같이 나타났다. 이는 각 지역에서 유입되는 노인의 수를 파악하여 서울시 내 구 단위와 경기도 내 시 단위로 표시하였으며, 원의 크기는 노인들의 유입통행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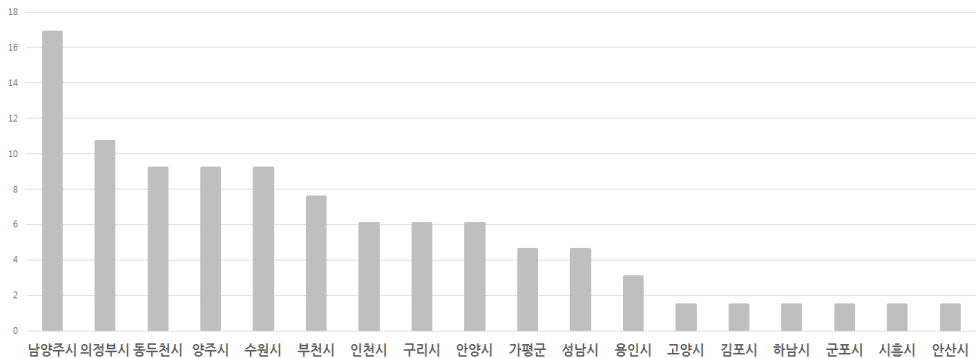
[그림 3-6] 제기동 일대를 방문하는 노인의 유입 비율

[그림 3-6]과 같이 노인의 유입통행을 살펴본 결과, 어느 특정 지역이라고 할 것 없이 다양한 곳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내 유입은 63%를 차지하며,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경기도에서의 유입은 3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7]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들의 거주지 비율 (서울시)

특히, [그림 3-7]과 같이 서울시 내 노인들의 유입은 노원구, 강북구, 은평구, 중랑구, 마포구, 도봉구, 성북구 등에서 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의 평균 이동시간이 40분에서 50분으로 나타나며 제기동 일대를 방문하기 위해 하루 왕복 1시간 30분 정도를 이동하는데 소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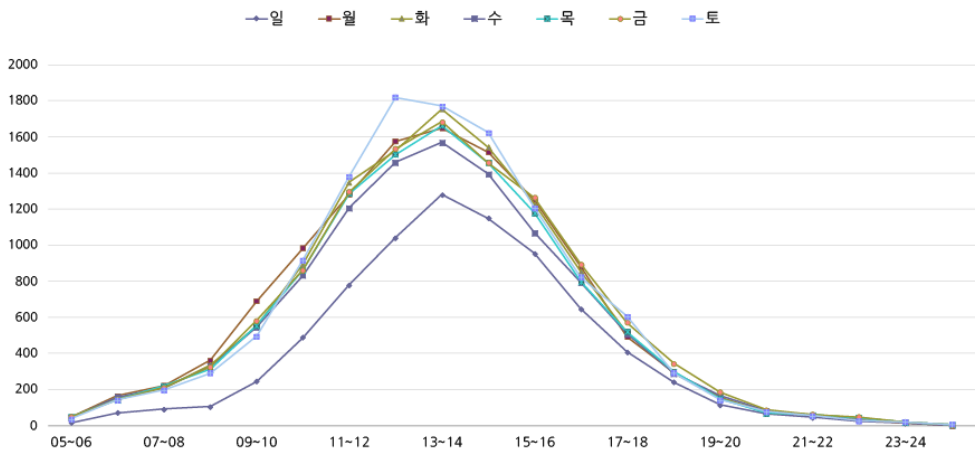


[그림 3-8]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들의 거주지 비율 (경기도)

[그림 3-8]과 같이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인 경기도 내 노인들의 유입은 동두천시, 양주시, 부천시, 수원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등에서 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 지하철로 노인의 평균 이동시간은 50분에서 1시간으로 나타난다. 이는 노인관점에서 평균 50분정도의 시간을 감수하고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인들에게 있어서 이동시간은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들의 유입통행을 통해 접근성을 살펴보고 노인들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접근성(Accessibility)은 이동성(Mobility)과 근접성(Proximity)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동성(Mobility)은 얼마나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 근접성(Proximity)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지려면 이동성과 근접성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 그러나 제기동 일대에서 나타난 노인의 특성을 살펴볼 때, 굉장히 먼 지역에서부터 유입되는 노인들을 보면 이들은 근접성보다는 이동성을 더 중요시 생각한다는 것이다. 거주지와 여가목적 장소의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노인들은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로 저렴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관계없이 노인들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저렴하게 이동하며 그 공간에서 여가활동을 즐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들은 지하철을 이용해 갈 수 있는 장소가 많지만 특히 제기동을 선택해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제기동 일대는 노인들에게 최적화된 장소로 노인들을 충족시키는 도시공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9] 2015년 제기동역 노인들의 집중 통행 시간대 분포
 자료: 서울 지하철 1호선 통행자료 (서울 메트로)

제기동 일대를 방문하는 노인들의 집중 통행시간대는 [그림 3-9]와 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복잡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이동하고 있으며, 오후 5시 이후로는 보통 집으로 돌아가는 패턴임을 나타낸다. 또한, 제기동 일대의 현장관찰조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기동역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인이었고 젊은 층의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콜라텍이 오후 6시에 영업을 종료한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오후 5시부터 떨이판매를 시작하는 점에서 노인들의 귀가 시간은 5시부터 6시까지 집중되어 나타난다. 오후 7시가 지나면 노인들 대부분은 저녁을 먹기 위해 집으로 귀가하여 제기동 일대는 사람이 없는 쓸렁한 지역으로 남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10]은 시간대별 제기동역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왼쪽은 오후 2시 제기동역의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오후 8시 제기동역의 모습이다. 제기동은 시간대별로 도시공간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기동 지역의 방문객 즉, 노인들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장소로 낮에는 노인들의 일상여가장소로 밤에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쓸렁하고 삭막한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3-10] 시간대별 제기동역 모습
(연구자 촬영)

다음은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들의 인터뷰이다.

“마음 같아선 아침 일찍 여기 나오고 싶은데 오전에는 젊은 사람들 출근시간 피해서 나와...그 시간대 피해서 나오면 대략 오전 11시쯤이나 되는데 그때부터 제기동에서 놀다가 주로 5시면 집으로 가. 며느리가 차려주는 저녁 먹으러

집에 가야지. 여기는 저녁시간 지나면 사람이 다 빠져나가. 노인네들이 그 시간에 뭘 하겠어..”

- 중구에 거주하는 박씨 할아버지(76세)-

“노인들이 여기서 노는데 얼마나 오래 있겠어. 그리고 체력적으로 밤까지 놀지도 못해..그래서 제기동에 있는 대부분 상업시설들이 8시면 다 문을 닫아. 밤에는 여기가 사람이 진짜 없지. 어떻게 보면 밤에는 여기가 다른 도시 같다니까. 여기가 낮에 와서 놀던 제기동이 맞나 싶다니까..”

- 송파구에 사는 이씨 할아버지(72세)-

2.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무임승차차가 가능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노인들의 방문 목적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기동역, 청량리역, 시장 일대에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2]와 같이 나타났다. 제기동 일대를 방문하는 목적으로는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이 137명으로 76%를 차지하였으며, 일상생활로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시장을 방문하는 노인이 40명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노인들은 여가활동을 위해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 도시공간은 노인들의 일상여가활동 장소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표 3-2] 노인들이 제기동을 방문하는 목적

방문 목적		노인 수	비율(%)	
일상 공간	병원	3	2%	
	시장	40	22%	
일상여가 활동공간	산책 및 사람구경	6	3%	76%
	다방	10	6%	
	콜라텍	102	56%	
	기원	2	1%	
	지하철쉼터	14	9%	
	무도학원	3	1%	
계		180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들의 이용 교통수단은 [표 3-3]과 같이 나타났다. 노인들 대부분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무료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버스와 자가용의 이용 비율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의 활동영역이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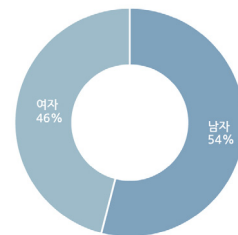
[표 3-3]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들의 이용 교통수단

방문시 이용수단	노인 수	비율(%)
지하철(경로패스)	160	89%
버스	13	7%
도보	5	3%
자가용	2	1%
계	180	

노인의 집중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노인들의 주 방문목적인 일상여가활동에 주목하였으며, 여가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노인 137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기동 일대에 방문하는 노인의 연령대는 [표 3-4]와 같이 나타났다. 여가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노인은 70대와 80대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71세부터 80세까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비는 [그림 3-11]과 같이 남자가 54%를, 여자가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녀비율의 편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80대부터는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해 여가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3-4] 방문하는 노인들의 연령대

연령대	남자	여자	합계
65-70	6	4	10
71-75	28	23	51
76-80	25	23	48
81-85	12	10	22
86-90	4	2	6
계	75	62	137



[그림 3-11] 방문하는 노인의 성별 분포

방문 빈도수는 [표 3-5]와 같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노인들은 거의 매일 또는 1주에 2-3회 제기동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제기동은 노인들

의 여가활동 장소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제기동을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5] 제기동에 방문하는 노인들의 방문 빈도수

방문 빈도수	노인 수	비율(%)
1주 5회 이상	48	35%
1주 3회 이상	46	34%
1주 2회	28	20%
1주 1회	6	4%
1달 2-3회	4	3%
1달 1회	5	4%
계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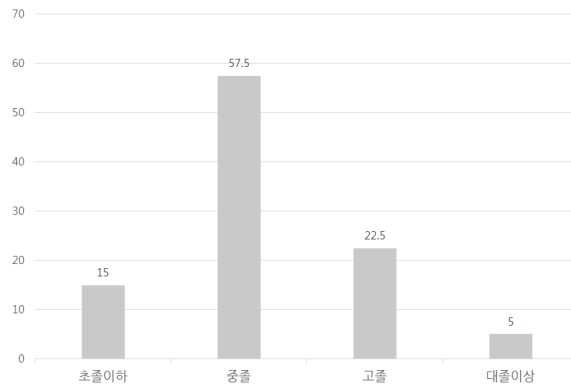
노인의 일상여가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노인들의 동거형태는 [표 3-6]과 같다. 노인의 근본적 욕구측면에서 이 지역을 방문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독거(63%)였으며 배우자 사별로 인한 외로움으로 집에 혼자 있지 못하고 여가활동을 위해 직접 찾아나서는 노인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은 15%에 해당하며 그 중 부부가 함께 여가활동을 위해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의 비율은 2%로 나타났다. 독거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노인들이 외롭고 친구를 사귀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노인들은 외로움의 근본적 욕구를 해결하고 그들만의 사회적 교류를 위해 제기동을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6]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동거형태

동거형태	노인 수	비율(%)
혼자 거주	87	63%
배우자와 함께	20	15%
배우자와 자녀	5	4%
자녀와 함께	25	18%
계	137	

가족과의 관계는 현재 동거형태에 맞추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동거형태는 혼자 거주하는 독거가 대부분이었으며, 자녀가족과는 자주 교류하지 못하는 노인이 대부분 이었다. 이는 자녀의 가족이 멀리 살거나 가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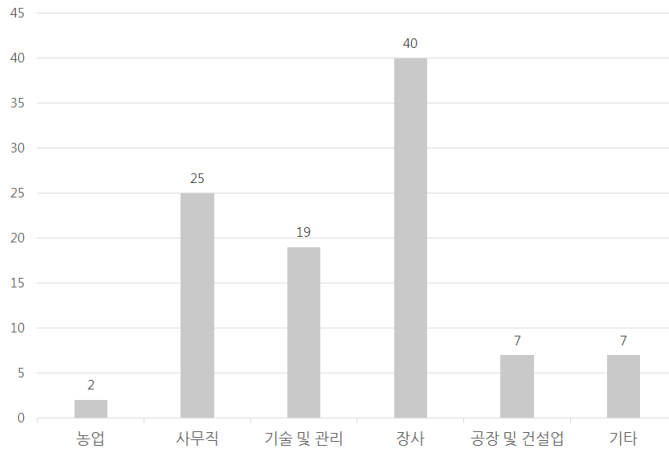
살아도 왕래가 거의 없어 사회적 교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노인들, 혼자 거주하여 더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이 심리적 고립감을 해결하고자 이 지역에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방문하는 노인들의 최종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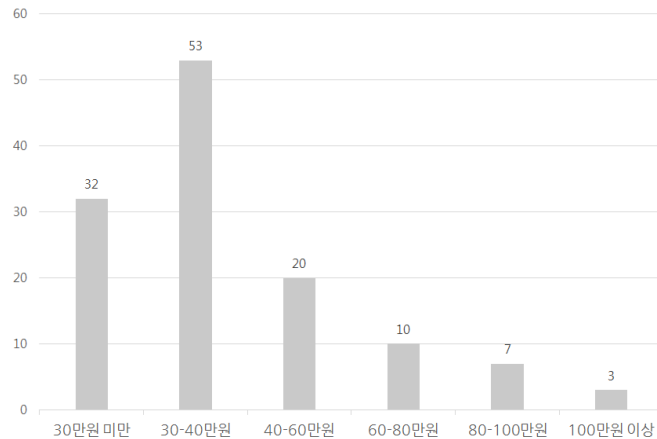
최종학력은 [그림 3-12]와 같이 초졸 이하가 15%, 중졸은 57.5%, 고졸은 22.5%, 대졸 이상은 5%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기동에 방문하는 노인은 중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70, 80대인 것으로 보았을 때 한국전쟁을 겪은 노인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대의 노인 평균 학력과 비교해보면, 동일 연령대 대비 학력이 낮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종묘공원 연구를 한 정유선(2013)에 따르면 이용하는 노인의 최종학력이 초졸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노인집중현상이 나타나는 종묘공원과 비교하였을 때,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의 최종학력이 더 높게 나타나며 노인의 학업수준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은퇴 전 종사한 직업으로는 장사(40%), 사무직(25%), 공장 및 건설업(19%), 기술 및 관리(7%), 기타(7%), 농업(2%)로 대부분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3]와 같이 농업에 종사했던 노인의 비율은 현저히 낮게 나타나 대체로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들은 이전에 도시생활을 해온 노인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13] 방문하는 노인들의 은퇴 전 직업

경제적 상황에 대한 조사는 제기동 일대에 노인들이 집결하는 원인이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지 파악하고 또 어떤 계층의 노인이 집결하고 있는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3-14]와 같이 경제적 상황을 묻는 한 달 용돈의 경우 30-40만원의 응답이 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30만원 미만의 응답이 3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기동에 주로 오는 노인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그 지원금으로 그들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14]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의 용돈

제기동 일대에 일상여가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노인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노인의 연령층은 대부분 70대에서 80대이며 혼자 거주하는 독거의 노인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들은 독거로 외로움에 혼자 집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밖에 나와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유형으로 드러난다. 노인들의 방문 빈도수는 1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 방문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제기동 일대를 방문하는 노인들 대부분은 거주지가 상대적으로 멀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와서 그들의 시간을 보내며 근본적 욕구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노인들이 특히 제기동 일대로 모여 일상여가활동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과거에 제기동 일대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노인들의 대부분(87%)은 ‘없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면 이 지역을 왜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과거(80-90년대)의 도시라는 느낌 때문에’, ‘과거에 이용했던 다방이 그대로 있어서’, ‘노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서’, ‘다른 젊은 계층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내 취향대로 멋을 낼 수 있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제기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거의 없어. 내가 여기 거의 매일 오는데 여기는 뭐 항상 똑같지... 어우 강남만 봐봐 얼마나 머리 아픈지 몰라. 갈 때마다 새로운 건물이 생기지..또 높은 건물은 얼마나 많은지..많은 것들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어. 나는 지금 이대로그가 좋은데 말야.. 자꾸 변하면 변할수록 나이가 든 것 같고 또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하는데 우리 늙은이들은 새로운 것 적응하는거 귀찮아한다고...우리들만의 옛 추억이 있는데 말야...우리들을 위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어? 근데 제기동은 옛날의 추억들을 회상할 수 있도록 남겨둔 공간이랄까?”

-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이씨 할아버지(81세)-

“제기동에 돌아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가밭이고 정말 튀는 반짝이 옷부터 요란한 색의 옷들까지...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옷을 입은 노인들이 많지. 그냥 멋쟁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야. 다른 곳에서 이런 옷 입고 다니면 젊은 사람들 다 쳐다볼걸? 이런 광경이 어디 흔한가? 근데 노인들도 다 우리랑 똑

같다고...멋 잔뜩 부리고 싶고 그 멋쟁이 모습 그대로 거리 거닐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렇지. 노인들 스스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공간? 없어...노인들이 마음껏 멋 부리고 그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공간...정말 필요하다 생각해. 그나마 제기동이 노인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이지.”

- 제기동에서 옷 장사하시는 박○○(49세)-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2가지 특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노인들이 변화를 싫어하여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이었다. 높은 건물들이 세워지며 빠른 변화가 나타나는 다른 도시들은 노인들에게 거부감을 주며 세월의 차이를 실감하여 더 우울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제기동은 1937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현재까지 도시의 큰 구조는 변화가 없었으며 도시의 형태 또한 변화가 미비하다. 제기동 일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른 도시처럼 밀도가 높은 건축물이 들어선 형태가 아니며 이 지역은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도시 형태로 지금까지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제기동은 도시의 큰 변화가 없으며 노인들이 한때 자주 다니던 다방, 무도장 등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올 때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공간이 아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이 도시 공간에 대해 더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둘째, 제기동 일대는 노인들의 밀집지역이다 보니 그들만의 멋을 뽐낼 수 있고, 다른 젊은 층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실제로 여가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노인들의 옷차림은 다르게 나타나 길거리에서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었다. 제기동은 노인들이 자신을 치장하고 과시할 수 있는 도시공간으로, 이곳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의류 및 잡화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노인들은 이 도시공간에서 그들 스스로 만족하며 그들의 여가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노인의 관점에서 덜 트렌디하며, 오래된 곳,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 비용이 덜 드는 곳 등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많은 노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간들이 도시에서 지속될 필요가 있다.

3절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의 활동과 공간특성

제기동 일대에는 하루 평균 17,000여명의 노인들이 오고가며 노인집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제기동 일대에는 시장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일상여가 장소로서 콜라텍, 무도교습소, 다방, 지하철 쉼터 등이 위치해있다. 제기동 일대에서 나타나는 노인들의 활동과 그 공간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다.

1. 콜라텍(무도장) 및 무도교습소

콜라텍은 콜라와 (디스코)텍의 합성어로서 1990년대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었다. 술을 마실 수 없는 청소년들이 콜라와 함께 춤을 추는 공간이었던 콜라텍은 이제 노인들을 위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바뀌었다. 노인복지전문가에 의하면 여가를 즐기려는 노인들의 욕구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노인문화가 바로 ‘콜라텍 문화’ 라고 할 수 있다.²³⁾

콜라텍은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60대부터 90대까지의 노인들이 그들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 찾고 있는 곳이다. [그림 3-16]과 같이 현재 제기동 일대에는 약 12개의 콜라텍 및 무도장이 위치해 있으며 무도교습소는 약 10개가 위치하고 있다.



[그림 3-15] 콜라텍에서 즐기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
(연구자 촬영)

23) 이현지, ‘갈 곳 없는 노인들’, 시사매거진, 2006.10.19



[그림 3-16] 제기동의 콜리텍 및 무도교습소 공간 현황

콜라텍은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60대부터 90대까지의 노인들이 그들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 찾고 있는 곳이다. [그림 3-16]과 같이 현재 제기동 일대에는 약 12개의 콜라텍 및 무도장이 위치해 있으며 무도교습소는 약 10개가 위치하고 있다. 제기동 일대의 콜라텍 및 무도장의 규모는 작은 것부터 크기는 800평(한층 면적)까지 다양하다. 규모가 큰 콜라텍의 경우 평일에는 1,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2,000명이 훌쩍 넘는 많은 노인들이 제기동을 찾고 있다. 입장료는 500원에서 1,000원 사이이며 카운터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시간제한 없이 머무를 수 있다.²⁴⁾ 무도교습소와 달리 콜라텍은 노인들의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그 내부 공간은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들의 식당과 전통찻집, 휴식 공간 등이 있다. 콜라텍의 주 고객층은 70대에서 80대 연령층이다. 제기동에 여가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노인들의 패턴을 살펴보면 집에서 점심을 해결한 후, 콜라텍에 와서 춤을 추다 밥을 먹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3-4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간다. 콜라텍 공간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멋쟁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교활동을 하며 그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콜라텍은 사교의 장이자 노인 남녀가 함께 춤을 추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남녀가 쌍쌍으로 짝을 지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처음 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잘 어울리도록 연결해주는 부킹여사도 있다. 또한 이 공간은 젊은 이들의 클럽과 유사하게 복장규정이 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 콜라텍을 다니는 노인들은 어디서나 알아볼 수 있다. 노인들은 가발, 눈에 띄는 색깔의 옷, 뽀짝이는 신발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껏 멋을 부리고 콜라텍으로 향한다. 이처럼 자신을 치장하고 깨끗하게 하며 매너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입장에 제한을 받는다. 콜라텍 입구에서는 강남 클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처럼 수질관리도 진행된다. 노숙자 또는 난동을 피우는 노인들은 블랙리스트로 입장이 허가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 이 공간은 읍지에서 양지로 바뀌었으며, 이는 노인들에게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노인들은 젊은이와 다를 것 없이 함께 춤을 추

24) '노인들의 흥대를 가다', SBS뉴스스토리, 77회 방영, 2016.02.27

며 사교활동을 하고 있다. 노인들은 이곳에서 인간의 본능 즉 이성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며 그들의 노년을 즐겁게 보내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콜라텍이라 하면 문란하고 퇴폐적인 분위기의 공간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의 근본적 욕구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이 공간은 그들의 여가 공간으로 노인들의 놀이터인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콜라텍은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에 친구가 같이 가자고해서 와봤는데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어. 다른 사람들한테 콜라텍 간다하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한번 와보라고 해. 여기는 노인들의 천국이야. 여기 오면 운동도 되고 너무 좋아. 집에 혼자 있으면 그냥 우울증 밖에 더 걸리지.”

- 구리에 거주하는 박씨 할아버지(80세)-



[그림 3-17] 제기동 일대 콜라텍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들 인터뷰 모습
(연구자 촬영)

“여기 오면 음악 있지 공간 넓지 깨끗하지 다른 노인들 눈치 안보지 그래서 너무 좋아. 내가 거동이 불편하기 전까지는 쪽 다닐 거야. 노인정가면 내가 막내여서 할머니들 커피 타야하고 나이가 많이 먹은 할머니들이랑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 지고 그래. 나도 나이 들었는데 남 눈치를 봐야 한다니까. 난 이것이야말로 노인복지라고 생각해.”

- 성남에 거주하는 김씨 할머니(71세)-

2. 노인들을 위한 커피숍 및 다방



[그림 3-18] 노인들로 북적이는 제기동 일대의 다방
(연구자 촬영)

제기동에서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는 노인들은 주로 조용한 다방으로 모여든다. 제기동의 다방은 요즘 도심 거리를 지배하는 커피숍 또는 카페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며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²⁵⁾ 다방이 빠른 속도로 없어지는 추세이지만 제기동 일대는 노인의 밀집지역으로 옛날 분위기를 연출하는 전통적인 찻집이 즐비해 있다. [그림 3-19]과 같이 제기동 일대에는 다방이 약 35개 정도 분포해 있다. 주로 노인들은 다방에서 조용한 분위기에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가며 그들의 일상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다.

제기동 일대에서 제기동역과 청량리역은 양극화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청량리역 부근에는 다른 지역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프렌차이즈 커피숍들이 위치해 있다. 그러나 제기동역 부근에서는 프렌차이즈 커피숍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제기동 일대에는 노인들의 집중현상으로 인해 노인을 타겟으로 하는 옛날

25) 허균, '노인들의 '강남역' 청량리 황혼의 블루스', 중앙시사매거진, 2014.10.17

다방만 존재할 뿐이다.

제기동 일대의 다방을 찾는 노인 인터뷰를 통해, 노인들은 제기동을 노인층을 위한 도시공간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에 대하여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덜 트렌디한 공간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도시공간이 노인들을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여기 제기동 다방에 온지는 5년이 넘었지.. 여기는 나 젊었던 시절 다니던 곳이랑 분위기가 비슷해 그냥 옛날 다방이야. 별다방인가 스타벅스 거기는 젊은 사람들만 많아서 내가 거기가면 사람들이 눈치 주는 것 같고 불편해서 못가. 그러면 우리 나이대가 어디를 가야하나 이게 문제야. 그런데 여기 제기동은 내 나이 또래 사람들도 많고 익숙해서 좋지.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상권이며 모든게 많이 바뀌자나 여기는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이 모습이 유지되면 좋겠어.”

- 잠실에 거주하는 박씨 할아버지(77세)-



[그림 3-19] 제기동 일대의 다방 현황

3. 지하철 쉼터 및 가로 공간



[그림 3-20] 노인들의 일상공간인 제기동역 지하철 쉼터
(연구자 촬영)

제기동역의 지하철 쉼터는 언제나 노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여가활동을 하고 돌아가기 전 휴식을 취하는 노인들 대부분이 지하철 쉼터에서 머무르며 사교 및 친교활동을 하고 있다. 서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처음 보는 사이이지만 전부터 알았던 사이처럼 친근하게 대화를 하며 그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하철 쉼터 공간에서는 노인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노인들로 북적이며 노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대인 6시 이후로는 한산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노인들은 뚜렷한 방문목적이 없더라도 제기동이라는 도시공간에 편안함을 느껴 주기적으로 방문하게 된다. 안 겠 학자가 옥외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활동에서 ‘사람은 사람이 있는 곳에 모인다.’ 라고 언급했듯이 제기동에 방문하는 노인들은 노인들이 많은 곳을 향해 이동하며 또 그곳에 더 밀집하게 된다. 이로써 노인집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하철 쉼터 공간 또한 비슷하다. 노인들은 하나 둘씩 힘들어서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며 자리가 없는 노인들은 [그림 3-21]과 같이 제기동역 인근 가로 공간에 걸터앉아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노인들은 비슷한 또

래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더 편안함을 느낀다. 이처럼 노인들은 다른 계층이 모여 있는 공간보다 노인들이 모여앉아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선호한다. 이들은 서로 모여앉아 사는 이야기와 자식 이야기 등을 하며 친교활동을 하곤 한다. 이처럼 노인들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더 몰리며 그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계층에 비해 쉼 곳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인들은 그들의 집중현상이 지하철 쉼터 및 가로공간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21] 노인들의 일상여가공간인 제기동역 인근 가로공간
(연구자 촬영)

제4장 노인집중현상에 의해 나타난 제기동의 도시공간 분석

노인의 집중현상이 나타나는 제기동 일대는 노인의 근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이며 이는 계획적이 아닌 자생적으로 변화된 도시공간이다. 노인들이 왜 제기동에 집중되는지 원인을 파악하여 제기동이 지니는 도시공간의 특성을 물리적, 인문사회학적, 경제적 3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절 멀티플렉스화된 ‘일상-여가’ 융합 공간

첫 번째 물리적 특성으로 제기동은 노인들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으로서 다양성을 지닌다. 제기동은 노인들의 멀티플렉스 공간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 도시공간의 주체는 노인으로 다른 도시와 비교해 특이성을 지닌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노인들은 밖으로 나와 활동을 하고자 하며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들의 활동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산책하며 물건을 구경하고 구매하는 노인, 다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 기원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 콜라텍에 가서 사교활동을 하는 노인 등 제기동은 노인들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기능을 갖춘 노인들의 멀티플렉스 공간이다. 즉, 이 도시공간은 저렴하게 노인 여럿이 모여 식사를 같이 하고 밥을 먹고 공연을 보며 술도 마시는 등 노인들의 일상여가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이루어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인들을 위한 도시공간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노인들은 노인들이 선호하는 특성을 지닌 도시공간에 밀집하면서 노인들의 집중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기동은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이자 노인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주어지는 다양성을 지닌 공간이다. 따라서 제기동이라는 도시공간은 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과 공간들이 잘 엮여 나타나는 ‘일상-여가’의 융합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노인들의 여가공간으로서 언급되고 있는 콜라텍 또한 노인들의 멀티플렉스 공간이다. 제기동 일대에 위치한 콜라텍은 무도장, 커피숍, 식당, 공연, 휴게

실 및 매점, 기원, 안마기계 등 여러 기능을 갖춘 복합화 된 형태의 공간이다. 멀티플렉스 공간의 콜라텍이 제기동 일대에 형성된 과정과 복합화 된 형태의 건물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흥미롭다. 시장이 위치해있는 제기동 일대는 도시개발로 인하여 시장을 현대화시키고자 집합건물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장사를 하던 노점상들은 집합건물에 들어가 장사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이 집합건물들은 악성의 오래된 건물로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되기 시작하였다. 각 집합건물은 약 750명의 소유주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미개발로 인하여 방치된 집합건물은 불법으로 영업을 시작되었다. 750명의 소유주에 의해 분리되고 방치된 집합건물을 한명의 소유주가 허가를 받아내고 소유권을 매입하면서 이 공간은 대형 복합시설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는 대형 복합시설로 자리 잡으면서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노인들이 선호하는 공간이 계획되었고 이는 현재 노인들을 위한 멀티플렉스 공간이 되었다. 제기동의 도시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노인들의 일상여가공간인 콜라텍을 운영하는 사장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 사장님은 어떻게 콜라텍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또 콜라텍이 제기동 일대에 어떻게 생겨나고 번성하게 되었나요?

“처음에 나는 제기동 집합건물 내에 위치한 나이트클럽 직원이었어. 그런데 여기 집합건물이 관리가 되지 않다보니 가짜 관리단이 생겼고 또 불법으로 콜라텍 영업을 시작하는 곳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 이게 결국 신고가 들어와서 벌금을 물게 된거야. 그 당시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올라가서 영업 중단을 시키라고 해서 음악을 끄고 불을 켜는데...이게 뭐야 노인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거야. 이렇게 노인들이 많은지 그때 처음 알았어. 그 이후에 이 집합건물의 흩어진 소유주 750명을 모으기 시작했고 나는 이 흐름을 읽고 여기서 노인들을 위한 콜라텍 영업을 하기로 했지. 불법으로 영업하는데도 이렇게나 많은 노인들이 오니까 이거는 충분히 사업을 해도 되겠다 생각했지. 여기가 노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도 여기는 예전부터 약령시장이 유명해 노인들이 제기동은 다 아니까..”

- 제기동 일대 콜라텍 사장 최○○(45세)-

질문) 콜라텍이 왜 복합화 된 형태로 바뀌게 되었나요?

“노인전용 콜라텍을 운영하려고 하니 무도장은 체육시설로 구분이 되는거야. 다른 무도장은 무도공간과 식당, 다방이 같이 있어서 술을 팔며 장사를 한다고... 그런데 이게 불법이야. 왜냐면 무도장은 체육시설로 구분되어 술을 판매할 수가 없어. 노인들에게 입장료 1000-2000원 받아서 어디 장사가 되겠냐고... 다들 술 팔아서 장사하는 거지. 그래서 합법으로 가능한 콜라텍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게 층이 구분되거나 복도를 끼고 아예 입구가 달라야하더라고...그래서 나는 층을 구분해서 한 층은 노인들이 노래 부르며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다른 층은 춤추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구분하게 된 것이지. 그런데 노인들의 습성이 돈이 있어도 적게 쓰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노인들이 좋아하는 시설을 다 내부화시켜서 여기서 즐기고 놀 수 있도록 해야겠다 싶었지. 그래서 지금 멀티플렉스 공간이 생기게 된거야.”

- 제기동 일대 콜라텍 사장 최○○(45세)-

인터뷰와 동대문구청의 여가활동 공간현황 및 폐업 자료를 통해, 노인의 일상 여가공간이 복합화 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기동에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공간인 무도장, 무도교습소, 노래교실, 다방, 기원 등 다양하게 많이 분포되어 나타났었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이러한 공간들은 최근 노인들의 기호에 맞춰 복합화 된 공간의 형태로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공간에 집약시킴으로써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한 공간에서 다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때 젊은 층을 위해 많이 생겨났던 ‘멀티방’ 과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최근에는 노인들을 위한 멀티플렉스 공간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제기동의 도시공간은 노인들을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기동에 위치한 멀티플렉스 공간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이는 [표 4-1]과 같이 나타난다. 이처럼 대부분의 멀티플렉스 공간은 식당, 커피숍 및 다방, 휴게실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멀티플렉스 공간은 복합화 된 형태로 존재하다보니 제기동 일대 도시공간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특정계층의 집중현상이 나타나면 이는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쳐 도시공간의 신축

이나 용도변경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제기동 일대의 노인들을 위한 멀티플렉스 공간은 모든 것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는 짧은 이동거리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의 공간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노인들은 다양한 선택권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기적이며 움직이며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오래 이동하지 않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멀티플렉스 공간들은 차를 마시는 조용한 정적인 공간과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동적인 공간이 공존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들의 수요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해왔으나 최근 현대적인 프로그램과 합법적인 용도의 시설이 없어지면서 노인들의 도시공간을 부각시키고 있다.

[표 4-1] 제기동 일대 멀티플렉스 공간의 프로그램 현황

상호명	프로그램						
	무도장	다방, 커피숍	식당	매점, 휴게실	기원, 안마기계	밴드, 노래방	댄스 교실
뉴현대 콜라텍	●	●	●	●	●	●	
체육의 전당	●	●	●	●	●	●	●
찬찬찬 콜라텍	●	●	●	●		●	●
한솔 콜라텍	●	●	●	●			
제일 무도장	●	●	●				●
시대 코리아	●	●	●	●		●	●
나비 콜라텍	●	●	●	●			
새마을 콜라텍	●	●	●				

[그림 4-1]은 최근 노인들이 선호하는 멀티플렉스 공간의 내부 평면을 지하1층과 지하 2층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는 [표 4-2]와 같이 무도장, 커피숍(다방), 마사지방, 기원, 식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층의 구조로 2개 층에 프로그램이 분산되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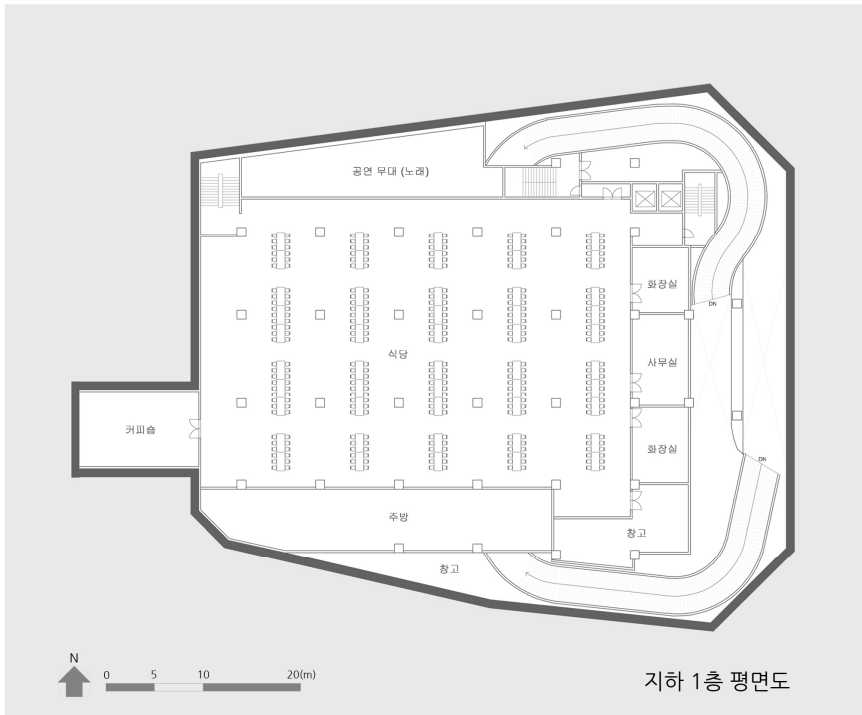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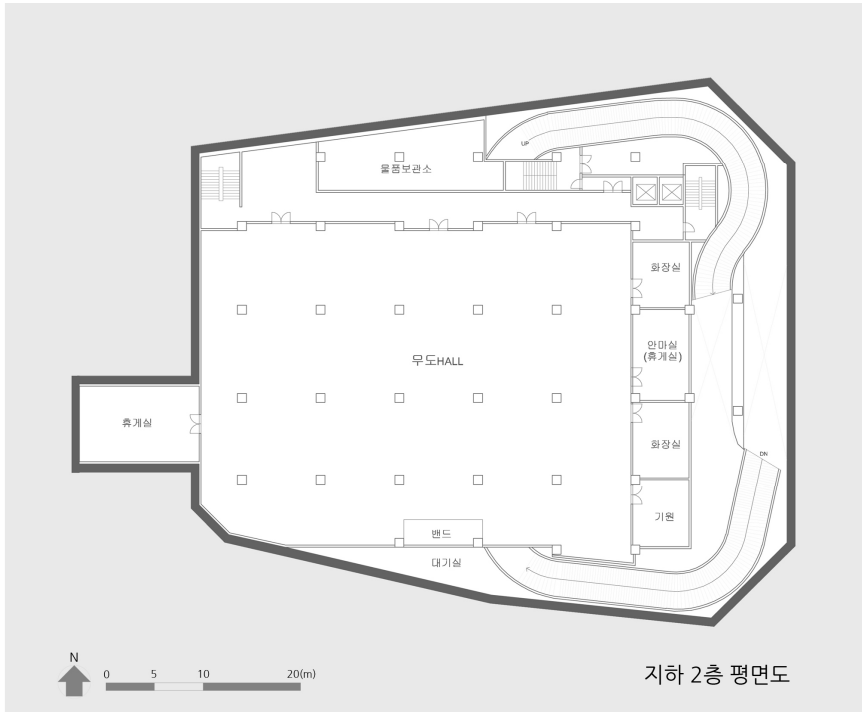
[표 4-2] 제기동 일대 멀티플렉스 공간의 프로그램

		
무도장	커피숍(다방)	마사지방(안마기계)
		
기원	식당	노래공연(식당)

자료: 연구자 촬영

지하 1층은 총 800평의 규모로 노인들이 선호하는 옛날다방식의 커피숍과 식당을 배치하여 모든 노인들이 한 공간에서 공연을 보며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복합화 된 형태로 공간이 구성된 것이다. 또한, 식당에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어 노래공연을 보면서 식사가 가능하고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 노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하 1층의 공간은 식당의 허가를 받아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공간으로 무도장을 철저히 구분되어 합법적인 구조로 설계된 공간이다.

큰 홀의 식당 공간은 칸막이가 없어 탁 트인 느낌을 주며 무도장을 가기 전 점심을 해결하기 위한 노인들, 무도장에서 즐기고 친구와 함께 밥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 노인들이 주로 찾는 공간이다. 이는 철저하게 무도장의 공간과 구분되어 있어 무도장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도 이곳에서 공연을 보며 밥을 먹을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다.



[그림 4-1] 제기동의 멀티플렉스 공간 내부 평면도

[그림 4-2]와 같이 이 식당의 공간은 공연이 열리며 흥이 많은 노인들이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의 특징은 노인들의 대표적 도시인 일본 동경에 위치한 ‘스가모’의 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2장에서 다룬 스가모 사례연구는 공간구획 없이 한 공간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징을 노인들이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제기동에서의 멀티플렉스 공간은 큰 홀과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인들이 선호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2] 공연을 보며 식사하는 노인들의 모습 (멀티플렉스 공간)
(연구자 촬영)

지하 2층의 공간은 노인들의 무도장과 기원, 휴게실, 기계식 안마방 등이 위치하여 노인들이 원하는 여가공간이 집약되어 나타난다. 이는 다양한 목적성을 띠며 어떠한 특정의 목적으로 이 공간을 이용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그림 4-3]과 같이 노인들에게 격한 춤이 아닌 운동 삼아 출 수 있는 춤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 저기 몸이 쭉신 노인들에게는 안마기계로 노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또한 탁골공원이나 종묘공원에 모여 바둑이나 장기를 두어야했던 것이 이제는 실내공간에서 따뜻하고 시원하게 동년배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제기동의 멀티플렉스 공간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인터뷰이다.



[그림 4-3] 콜라텍에서 춤을 추는 노인들의 모습
(연구자 촬영)

질문) 제기동의 멀티플렉스 공간을 방문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주로 와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나는 여기 오는 이유가 그냥 운동 삼아 오는데 와서 사람 구경하고 또 앉아있다 보면 친구도 생기고...또 기원이 있어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재밌지..기원에 돈 주고 가기는 싫고 또 탐골공원이나 종묘공원에 바둑 두러 가자니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 그냥 실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즐기면 되지.”

- 멀티플렉스 공간을 이용하는 이씨 할아버지(80세)-

“나는 여기 운동하러 오는데 여기서 춤도 추고 공연도 보고 밥도 먹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난 매일 온다니까...경로당 가면 그냥 앉아있기밖에 더해? 이렇게 움직이면서 운동하고 사람들도 사귀고.. 춤고 더운 날 실내에서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잖아.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알아? 여기는 그냥 들어와서 마음껏 즐길 수 있어.”

- 멀티플렉스 공간을 이용하는 박씨 할머니(76세)-

“일단 여기 오면 기본 4시간은 놀고 집에 가. 공연 보면서 밥 먹는 것도 즐겁고 와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나는 여기서 춤 추고 놀다가 밖에 다방이나 식당 가는데 여기 제기동에 노인들이 갈 곳이 많잖아. 시장 구경도 재밌고 그래서 나는 제기동 매일 와. 제기동 같은 곳이 또 있으

면 좋은데 어디 늙은이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나? 그냥 이대로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기동이 유지되면 좋겠어.”

- 멀티플렉스 공간을 이용하는 정씨 할머니(72세)-

이와 같이 제기동 일대의 도시공간에는 노인들을 위한 일상여가활동 공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노인들은 제기동의 도시공간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며 이는 노인들의 일상공간으로 그리고 여가공간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기동은 노인들의 멀티플렉스 도시공간으로서 노인들의 일상과 여가의 융합공간으로 볼 수 있다.

2절 친숙한 사회적 교류 공간

제기동의 도시공간은 노인들의 자율적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교류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많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상대적으로 시간은 많으나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기 싫어하는 노인들은 하나 둘씩 밖으로 나와 노인들끼리 교류활동을 하며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노인들에게 있어 제기동은 사회교류의 장이며 서로 친교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진다. 이곳에 오면 다 친구가 되며, 격이 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들만의 삶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이 도시공간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아도 되며 노인들은 이 공간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제기동에 모이는 노인들은 서울과 경기도권 다양한 지역에서 모이는 노인들로 다양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제기동에서는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적 교류활동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제기동 시장, 지하철 쉼터, 콜라텍, 다방, 기원 등 다양한 공간에서 나타난다.

제기동 시장에서는 서로 물건을 구매하며 사회적 교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서로를 기억하며 안부를 묻는 등의 교류활동으로 나타났다. 한동안 제기동을 방문하지 않은 노인에게는 안부를 물으며 서로를 기억해주는 등 서로를 챙겨

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서 장사하다보면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어. 가게 단골 손님인데. 그분들이 거의 매일 오시다가 한동안 안보이면 나도 모르게 걱정이 되더라고. 노인 분들이시니까...여기서 장사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친해지는데 그 가족들 얘기까지 다 알지. 그만큼 정도 많고 교류를 하게 되는거야. 이 옆에서 과일 장사하시는 할머니는 그 전에 이 자리에서 장사하시던 다른 할머니한테 장사를 받아서 시작하게 된거야. 그만큼 서로 교류가 많지.”

- 제기동 시장 상인 박○○(52세)-

노인들의 휴식처인 지하철 쉼터에서는 그들이 사는 이야기를 공유하며 제기동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공유하며 교류활동을 하고 있었다. 지하철 쉼터는 노인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 다른 노인들과의 사교활동을 하는 장소로 나타났으며, 이는 탐골공원이나 종묘공원과 같이 노인들이 모여앉아 사회적 교류활동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난 여기 제기동에 노인들이 시장 때문에 많은지 알았는데 이게 콜라텍 때문이라며? 나는 장보고 집에 가기 전 여기 거의 매일 앉아있었는데 이런 저런 얘기 많이 들었지. 여기 앉아있으면 모든 정보는 다 듣는 다니까. 다들 여기서 이런 저런 얘기 주고받으며 친해지는데 이런 공간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가 진정한 사교의 자리라고..이러한 곳이 노인들을 위해 많이 생겨났으면 해. 이런 쉼터 공간들을 노인들이 선호하니까 모여앉아 이런저런 얘기하며 서로 교류 하는거야.”

- 제기동 일대를 방문하는 정씨 할머니(69세)-

제기동에 위치한 콜라텍과 다방은 앞에서 언급된 사회적 교류활동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콜라텍에서는 노인들이 긴 복도 벤치에 앉아 사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그림 4-4]와 같이 나타난다.

콜라텍이라는 공간은 좌석의 결정에 있어 자유로우며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노인들은 스스로 만남을 선택하고 또 만남에 있어서도 오픈되어 있는 것이다(김지현, 2014). 무엇보다 이 공간에서 흥미로운 점은 ‘부킹여사’가 있어 노인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도우미 이름표를 달고 부

지런히 움직이는 50대 아주머니들은 이곳에서 ‘부킹여사’ 라고 불리는데 혼자 온 노인들은 부킹여사의 손에 이끌려 즉석 파트너와 눈인사를 나누고, 한발 두발 스텝을 맞추다 금세 친구가 된다. 이 공간에서 노인들은 남녀 한 쌍이 짝이 되어 춤을 추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며 사회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 4-5]와 같이 식당은 식사를 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교류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서로 함께 사귀 친구와 이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서로를 알아가며 친교활동을 하고 있다. 이 공간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쌍쌍으로 테이블에 앉아 친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간혹 여러 명의 그룹이 있는데 이는 서로 안면이 있는 노인들이 합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노인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일상여가활동을 즐기기보다는 사교활동이 주목적임이 분명하다. 이 공간에서 노인들은 서로 번호를 알지도 못하지만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함께 테이블을 공유하고 그들의 사는 이야기를 공유하곤 한다.

“여기서 알게 된 친구? 그냥 친구지. 나이 먹어서 그냥 사람들 사귀면서 보내는 거지. 여기서 만나면 서로 이름도 잘 안 물어봐. 여기 오는 사람들은 거의 매일 오는 사람들이니까 지나가다 보면 합석해서 같이 찌게 시켜놓고 술 한 잔 하면서 서로 사는 얘기하지. 나는 솔직히 집에 있을 때보다 여기 나오면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졌어. 사실 이런 것이야말로 노인복지인데..”

- 제기동 일대를 방문하여 사교활동을 하는 박씨 할머니(74세)-

“나는 여기서 알게 된 할아버지랑 청량리 맥도날드에서 만나서 같이 놀러 와. 남자친구인데 여기서 만났어. 여기 다 외로워서 오는 거지. 여기 오면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도 많고 좋지. 맥도날드 가봐봐. 거기도 다 노인들이야. 여기 노인들이 그렇게 많아. 일단 여기는 노인들이 할게 많으니까 모이고 또 그 사람들이 같이 사교활동 하는 거지. 노년에 건전하게 남자친구 있는게 얼마나 좋은데.”

- 제기동 일대를 방문하여 사회적 교류활동을 하는 윤씨 할머니(69세)-

현장관찰조사 및 인터뷰에 의하면 제기동의 도시공간은 노인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제기동에 방문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독거노인으로 외로움

에 혼자 집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다른 노인들과 어울려 지내기를 희망한다. 특히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의 경우, 이성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서로 의지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 여가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제기동 일대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는 노인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여가생활을 하다 만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서로 연락을 하고 서로 안부를 물어보면서 사회적 교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기동 일대에 여가를 즐기러 오는 노인들은 대부분 친구랑 오기 보다는 이곳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네 친구가 아닌 새롭게 알게 된 친구들과 교류를 함으로써 노인들은 고립감에서 벗어나 일상여가활동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가활동을 즐기는 노인의 특성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싶고 또 다른 젊은 층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여가활동을 즐기고 싶어 하는 욕구가 드러났다. 이처럼 노인들은 제기동 일대에서 사회적 교류를 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들의 삶을 즐기고 있다.



[그림 4-5] 콜라텍 식당에서 사회적 교류활동을 하는 노인들
(연구자 촬영)

3절 노인의 소득수준에 최적화된 소비 공간

도시공간의 주체는 노인으로, 제기동은 노인들의 소득수준에 최적화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구조로 흘러가는 도시공간에는 노인들의 집중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노인들은 왜 제기동의 도시공간을 선호하는 것일까? 제기동에 노인이 집중되다보니 노인의 소득수준에 적합한 비용으로 노인들을 수용하게 된 것일까? 아니면 저렴한 비용으로 조직된 도시이다 보니 노인들의 집중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 제기동에 노인집중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의 정확한 원인과 결과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떠한 원인으로 노인들의 집중현상이 시작되었든 이 도시공간은 철저하게 최소화된 비용으로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처럼 제기동 일대의 시장, 식당, 멀티플렉스 공간 등은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도시공간이 구성되고 또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질문) 제기동 일대의 식당가는 매우 저렴한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운영하게 되셨나요?

“일단 제기동과 청량리 지역은 시장이 있어서 식자재가 엄청 싸요. 그래서 우리도 싸고 싱싱하게 식자재 구입이 가능하죠. 식자재가 워낙 싸다보니 주변 식당들 가격이 다 저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노인들이 오시는 곳인데 싸게 장사해야지. 여기서 비싸게 팔아봐요. 어디 장사가 되나..... 여긴 그런 곳이에요.”

- 식당을 운영하는 정○○(52세)-

앞의 인터뷰와 1991년 경향신문²⁶⁾에 의하면 제기동에 위치한 재래시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시장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은 젊은 시절 돈을 많이 벌어서 놓았다 하더라도 은퇴이후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26) ‘강남 A백화점 오이 2개 240원 고물가 가게부시대. 엄마의 장바구니는? 제기동 경동시장 오이 3개 250원’, 경향신문, 1991.08.25

소비를 최소화하며 지출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제기동에서 물건을 싸게 구입하며 먹거리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여기서 제기동의 시장은 노인집중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4-6] 제기동 일대 식당에서 여럿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
(연구자 촬영)

또 다른 노인집중현상의 원인은 제기동의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노인들의 멀티플렉스 공간인 콜라텍의 입장료는 현재 1,000원으로 저렴하다. 싸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기에 노인들은 많이 제기동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인들이 이용하는 대형 멀티플렉스 공간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가격을 인상하고자 계획하였다. 그러나 노인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한 계층으로 입장료가 1,000원 더 올라 2,000원이 되었을 때 제기동 내 다른 소형의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입장료 1,000원 차이로 틈새시장을 공략한 소형의 멀티플렉스 공간들이 생겨났으며 주변과 매우 다이나믹한 구조로 쥘여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멀티플렉스 공간은 어쩔 수 없이 입장료가 1,000원으로 통일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철저한 경제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1,000원-2,000원에 민감한 소비계층을 상대로 하는 박리다매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는 제기동의 도시공간과 노인들의 멀티플렉스 공간이 규모의 경제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들의 공간은 제기동 내 시장 주변과 연계있으며, 싸고 대량으로 구입이 가능하며 공연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연은 어느 정도 이상의 사람이 모였을 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노인들이 한 곳에 집중되면서 가능해지게 된다.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는다면 노인들의 관리, 음식 값의 조정, 공연의 유무, 노인들의 복장 등이 힘들어지게 된다. 이로써 제기동의 도시공간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제기동의 도시공간이 어떠한 계층의 노인들로 구성되며 또 노인들을 위한 공간은 어떠한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었는지 알아보려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 멀티플렉스공간인 콜라텍이나 주변 식당가는 매우 저렴한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운영하게 되셨나요? 또 이곳에 오는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노인들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여기 제기동시장이 유명하잖아요. 여기 물가가 싸니까 이게 가능한거죠. 우리는 여기 콜라텍의 식당 장사하는데 바로 옆에 시장가서 식자재 구입해서 음식 만들어 팔아요. 워낙 여기 물가가 싸니까 다른 지역이랑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노인들이 자주 오는 콜라텍은 입장료랑 식사 값 다 해서 하루 10,000원 소비하도록 세팅되어 있는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돈이 왜 이렇게 결정되었냐하면..노인들이 연금 보통 한 달에 30만원 받는다 쳤을 때 노인들이 매일 온다 생각하면 하루에 10,000원 소비해야 하는거죠. 그러면 여기 입장료 1,000원에 옷 보관하는데 500원, 식사 마음껏 뷔페로 먹어도 6,000원 거기에 여러 명이 술 마시고 나눠서 내면 한 사람당 2-3,000원 내면 그게 하루 10,000원 정도 소비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콜라텍 이용료가 이러한 이유로 결정 된거예요. 그리고 여기의 주 고객층이 노인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굴러가지 않음 망해요. 우리 콜라텍 식당은 700명의 노인을 수용할 수 있어서 직원을 42명 고용했어요. 그런데 인건비 나가다보면 이게 장사가 되냐구요? 그래서 지금은 다 자르고 7명의 핵심 멤버로만 구성되어 바쁘게 장사하죠.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노인들의 지출이 크면 모를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하죠.”

- 제기동 일대 콜라텍 사장 최○○(45세)-

이에 따라,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렉스 공간의 가격은 노인의 연금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²⁷⁾로 보통 노인들에게 매달 약 20-30만원이 지급된다. 그렇다면 20-3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거나 그 이상의 재력이 되는 노인들만 이 도시공간에 집중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 그럼 제기동에 오시는 노인들은 20-30만원 이상 소비가 가능한 계층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제기동에 와서 시간을 보내시는데 돈이 충분하신가요?

“그렇죠...제기동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매일 오시는데..평균 30만원 이상 있어야 가능하니까요. 그럼 30만원 이하의 노인들? 못오지...못 온다고 보면 되요. 그런 분들은 거의 탐골공원이나 종묘공원에 배회하고 있다고 보면 되지. 그러니 여기는 어느 정도 연금을 받거나 한 달에 30만원 이상 쓸 수 있는 노인들이 모여 있다고 보면 되요.”

- 제기동 일대 콜라텍 사장 최○○(45세)-

“응..그렇지. 나는 연금이랑 우리 아들이 주는 용돈 합치면 보통 한 달에 50만원 정도 쓸 수 있어. 월세, 가스비 등 내고나면 가용 소득이 30만원 정도인데 여기 와서 놀면 충분히 쓰지. 보통 하루에 많이 써봐야 9,000원에서 10,000원인 걸. 매일와도 충분하지. 여기는 노인들이 돈 쓰기 좋은 곳이야. 비싸지 않고 좋아.”

- 제기동 일대를 방문하는 김씨 할머니(68세)-

“응. 나는 정부로부터 지원금 2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저것 돈 들어갈 곳도 많고 하니까 여기 와서 매일 즐기지는 못해. 나는 평일에 손주 봐야하니까 주말에만 여기 오는데 20만원으로 충분히 쓰고도 남지. 그래도 여기는 다른 노인들이 모이는 곳과는 달리 좀 수준이 높다 라고 할까? 파고다 공원 가봐..거기 지원금 10만원 미만으로 받아서 힘든 사람도 많아. 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훨씬 분위기가 좋지. 여기 오는 노인네들 다 어느 정도 비슷하다니까.”

- 제기동 일대를 방문하는 정씨 할머니(77세)-

27) 기초노령연금,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1609&cid=43667&categoryId=43667>>

“응. 여긴 그런 곳이야. 여기 오면 다방, 콜라텍, 시장 등등 많지. 사실 여기 오다보면 돈을 더 많이 써. 그런데 나는 그 정도 소비는 가능해. 여기 다방이 그렇게 싸지도 않아. 그리고 밥값은 다른 곳 보단 싸다해도 어느 정도 지출이 있는 걸...그 정도 지출도 안 되면 저기 종로 3가 쪽 종묘공원 뒤편에 골목길 가야해. 저기는 노인들 많아서 싸거든. 여기보다 훨씬 싸지. 근데 저기는 경제적 수준이 여기보다 낮아서 그런지 안 좋아. 오히려 노인들이 여기 오려면 왔지. 여기 오다가 탑골공원 쪽은 잘 안 간다니까. 나름 노인들이 소득수준으로 나뉘는지 무튼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도 다 다른 성격을 띠고 있어.”

- 제기동 일대를 방문하는 박씨 할아버지(81세)-

이처럼 제기동은 노인들이 30만원 이상의 소비가 가능한 노인계층의 밀집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도시공간은 경제적인 구조로 잘 조직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제기동은 어느 정도 소비가 가능하며 적어도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깨끗하게 하며 매너 있게 상대방을 대하려는 감각 있고 세련된 노인들의 집단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구조로 인해 제기동은 노인들의 집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노인 소득수준에 최적화된 도시공간이라 할 수 있다.

제5장 결론

최근 현대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일상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였으며 노인들의 활동관련 서비스 제공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경로우대’라는 무임승차제도의 사회적 혜택을 받으면서 노인의 이동성은 이전보다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한 도시공간에 밀집하여 그들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으며 이는 노인집중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집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제기동에 주목하여 어떠한 노인들이 도시공간을 선택하고 이용하고 있으며, 또 이는 어떠한 도시공간의 특성을 지니는지 알아보았다.

설문조사, 현장관찰, 심층인터뷰를 통해 제기동에 방문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들은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일상여가활동을 위해 이동하고 있으며 노인들은 근접성보다는 이동성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대부분 독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들은 근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집중현상이 나타나는 제기동은 노인의 근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이며 이는 계획적이 아닌 자생적으로 변화된 도시공간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밀집하는 지역인 제기동이 지니는 도시공간의 특성을 물리적, 인문사회학적, 경제적 3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기동은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이자 노인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주어지는 다양성을 지닌 공간이다. 이 도시공간은 저렴하게 노인 여럿이 모여 식사를 같이 하고 밥을 먹고 공연을 보며 술도 마시는 등 노인들의 일상여가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이루어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노인들의 기호에 맞춰 공간들이 복합화 되어 나타나면서 노인들의 멀티플렉스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제기동이라는 도시공간은 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과 공간들이 잘 섞여 나타나는 ‘일상-여가’의 융합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집중현상이 나타나는 제기동은 사회적 교류의 공간이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생각을 지닌 노인들이 밀집하면서 이 도시공간은 노인들의 도시가 되었고 다른 젊은 층과 구별되어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노인들의 사회적 교류활동은 제기동의 도시 공간 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각 공간마다 사회적 교류활동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분석을 통해, 노인들은 공간이 구획된 것보다 주로 오픈되고 넓고 활 트인 공간에서 사교활동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제기동은 다른 도시에 비해 시장이 있어 물가가 저렴하며 경제력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인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도시이다. 이 도시공간은 매달 연금 30만원 이상 받는 노인들에 맞춰 하루에 10,000원씩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세팅되어 있으며 이는 철저한 경제적 구조에 의해 구성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제기동의 도시공간과 노인들의 멀티플렉스 공간은 도시의 주체가 노인이라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 노인들은 그들의 소득수준으로 일상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나서고 있으며 제기동은 철저히 잘 짜여진 경제적 구조로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기동은 노인들의 소득수준에 최적화된 도시공간이라 할 수 있다.

노인들은 덜 트렌디하고, 오래된 것, 비용이 덜 드는 곳을 선호하고 있다. 노인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특징들은 도시공간에서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을 수용하는 공간적 특성을 노인집중현상이 나타나는 제기동에서 발견하였으며, 이는 전체 도시로 확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노인에 대한 문제는 심각해지며 이들을 받아줄 공간을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통행패턴에 따라 나타나는 노인들의 밀집지역을 도출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유인요소로 밝힌 것들은 범위가 너무 포

괄적이었다. 또한 노인에 관련하여 다루어진 연구들은 노인들의 행태분석이 대부분이었으며 노인과 공간이 함께 다루어진 논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들의 집중현상에 주목하여 노인들의 특성을 밝히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구체적 공간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자가 제기동에 방문하는 노인들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 노인들의 특성이라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또한 예비노인층(50세-60세)을 포함한 미래의 노인들은 현재의 노인세대와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노인층이 포함되지 않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들 노인이 일반적 노인의 대표성을 가진 분석집단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연구결과가 다소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초고령 사회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원하는 도시공간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노인의 여가장소 및 노인 친화적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김익기(1999). 노인과 여가: 즐거운 노후. 과연 어려운 일인가?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연구센터: 서울
- 김태현(1996). 노년학. 교문사
- 서울시사편찬위원회(2000). 서울교통사
- 오근재(2009). 퇴적공간: 왜 노인들은 그 곳에 간했는가
- 장인협, 최성재(2006). 노인복지학

■ 연구논문

- 김소진(2009). 노인들의 집단 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 종묘공원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학회』, 40(3):349-375
- 노시학, 조창현(2008). 수도권 고령인구과 청장년인구 간의 통행패턴과 노인 지하철무임승하차제도에 대한 인식. 『대한지리학회』, 2008.5, 261-268
- 박재간(1996).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노인복지정책연구』, 4:9-133
- 이도희, 김억(2008).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노인의 접근유발요소 분석. 『국토계획학회』, 43(5): 165-178
- 이윤경(2013).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의 운영현황 및 정책과제. 『사회복지학회』, 198: 56-66
- 이정규, 김원섭(2013). 이용자 중심의 도시 경로당 리모델링 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p208-209
- 이창훈, 정성봉(2014). 교통카드자료를 활용한 고령자의 통행행태분석. 『한국철

도학회』, p1527-1530

임춘식(1996). 대만의 노인복지정책과 프로그램. 『노인복지정책연구』, 1:25-55

임춘식, 김근홍, 김문석, 이근홍, 이인수(2006), 서울시 경로당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31:313-344

추상호(2008). 고령자의 통행행태 분석에 관한 연구. 『교통연구』, 15(2): 59-72

한수경, 이희연(2015). 서울대도시권 고령자의 시간대별 대중교통 통행흐름 특성과 통행 목적지의 유인 요인 분석, 『서울도시연구』, 16(2): 183-201

■ 학위논문

김우석(2015). 노년기 여가공간 생산에 관한 연구: 콜라텍의 르페브르 공간생산 이론적 접근.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김지현(2014). 콜라텍 공간의 의례과정을 통한 노인들의 학습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남궁금순(2008). 경노당 노인의 여가활동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양천구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임호(2012). 서울시 지하철 통행패턴을 통한 연령계층별 활동중심지 분석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종천(2010). 고령화 사회 노인 여가활동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이구석(2009). 서울시 종로 노인문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종로 종묘공원·탑골공원이용 노인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이도희(2009). 노인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도시 공간 네트워크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이삼순(2014). 경로당 서비스 질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 이선미(1991). 중, 노년기 여가활동 유형과 인생만족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영선(2012). 여가활동 참여유형이 노인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 적야천심(1999). 탐골공원과 한국 할아버지: 장소성에 나타난 한국적 특성.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대학원
- 정유선(2013). 노인의 일상 여가장소 이용행태와 선택요인: 서울의 종묘공원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조미정(2014). 고령화사회 노인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일본 스가모 지조도오리(巢鴨地蔵通り)상점가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조상은(2013). 청량리 일대 근, 현대 도시주거지의 형성과정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조태숙(2002).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대학원
- 주요택(2010). 노인의 여가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 종로 탐골공원과 종묘공원.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연구보고서

- 강홍빈(2012). 청량리: 도시건축의 층위와 일상.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노인복지센터(2009). 노인문화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노인복지센터
- 조남건(2001). 고령화에 따른 통행 특성 연구. 국토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노인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뉴스기사

경향신문. 1991.08.25. “강남 A백화점 오이 2개 240원 고물가 가게부시대. 엄마의 장바구니는? 제기동 경동시장 오이 3개 250원”

매일경제. 1994.03.31. “서울 清凉里(청량리)시장 재개발”

시사매거진. 2006.10.19. “갈 곳 없는 노인들: 복지시설은 늘어도 서비스는 제자리”

주간조선. 2012.08.20. “종묘의 노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종묘광장 성역화사업 5년”

주간조선. 2015.12.07. “노인들의 홍대 1호선 제기동역에 가다”

중앙시사매거진. 2014.10.17. “노인들의 ‘강남역’ 청량리 황혼의 블루스”

SBS 뉴스토리. 2016.02.27. “외롭지 않아요. 한·일 노인들의 ‘홍대’ 를 가다”

TBS. 2015.11.10. “노인들 발길 끊긴 종묘공원”

■ 인터넷 웹사이트

통계청 홈페이지. 장래 인구추계.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서울 메트로. 지하철 1~4, 9호선. <http://www.seoulmetro.co.kr/main.action>

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철5~8호선. <http://www.smrt.co.kr/main/index/index001.jsp>

한국 스마트카드. <http://www.koreasmartcard.co.kr/>

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 제3호 <http://www.sdi.re.kr/node/45482>

부 록

■ 부록 1.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들 설문조사

카테고리	질문 내용	
성별	남자 <input type="checkbox"/> 여자 <input type="checkbox"/>	
방문 빈도 수	매일 <input type="checkbox"/> 1주 3회이상 <input type="checkbox"/> 1주 2회 <input type="checkbox"/> 1주 1회 <input type="checkbox"/> 1달 2-3회 <input type="checkbox"/> 1달 1회 <input type="checkbox"/> 2-3달 1회 <input type="checkbox"/> 1년 1회 <input type="checkbox"/>	
연령대	65미만 <input type="checkbox"/> 65-70 <input type="checkbox"/> 71-75 <input type="checkbox"/> 76-80 <input type="checkbox"/> 81-85 <input type="checkbox"/> 86-90 <input type="checkbox"/>	
방문 시 이용수단 (중복허용)	경로우대 패스권(지하철) <input type="checkbox"/> 버스 <input type="checkbox"/> 도보 <input type="checkbox"/> 자가용 <input type="checkbox"/> 오토바이 <input type="checkbox"/> 택시 <input type="checkbox"/>	
거주지역	_____시 _____구 _____동	
거주현황	독거 <input type="checkbox"/> 부부 <input type="checkbox"/> 자녀와 함께 <input type="checkbox"/> 자녀가족과 함께 <input type="checkbox"/>	
방문 목적 (중복 허용)	여가사교(친목)활동 <input type="checkbox"/> 구경 <input type="checkbox"/> 약재상(무료센터) <input type="checkbox"/> 구매목적 <input type="checkbox"/> 병원(한의원) <input type="checkbox"/> 친구 집 방문 <input type="checkbox"/> 식사 <input type="checkbox"/> 휴식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여가, 사교(친목)활동을 하고 있다면..?(여가활동공간) 다방 <input type="checkbox"/> 멀티플렉스(콜라텍,무도장) <input type="checkbox"/> 구경 및 산책 <input type="checkbox"/> 식사 <input type="checkbox"/> 지하철 컴퓨터 <input type="checkbox"/> 댄스교실 <input type="checkbox"/> 공원 <input type="checkbox"/> 찜질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병원 <input type="checkbox"/> 친구 집 방문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방문 루트		
체류 시간	_____시 ~ _____시	
제기동일대 거주 경험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사회경제적특성	교육수준	초졸이하 <input type="checkbox"/> 초졸 <input type="checkbox"/> 중졸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대졸이상 <input type="checkbox"/>
	은퇴 전 직업	
	가족과의 교류	자녀와의 교류O <input type="checkbox"/> 자녀와의 교류x <input type="checkbox"/> 자녀 없음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상황	2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20-40만원 <input type="checkbox"/> 1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그 외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제기동 일대 재방문 의사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부 록

■ 부록 2.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들 심층인터뷰

카테고리	질문 내용
노인의 특성	제기동에 오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는가? 예) 온양온천? 종로3가?
	집 주변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안가고 이쪽에 오는 이유?
	제기동 일대를 방문한지 얼마나 오래되었나? ① 6개월 이내 ② 1년 이내 ③ 2-3년 ④ 4-5년 ⑤ 5-10년 ⑥ 10년 이상 ⑦기타: _____
제기동 지역을 선택한 이유	왜 제기동으로 모이는가? 많은 지역 중 왜 하필 제기동인가?
	클라텍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어떻게 알고 왔는가?(노인의 커뮤니티?)
	제기동 일대를 선호하는 이유?
	멀리서 오시는 분들)) 시간을 감내하고 제기동에 오는 특별한 이유? -> 제기동의 어떠한 특징 때문에 좋아서 선택?
종로3가/5가 에서의 이동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제기동일대 거주 경험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거주 형태	독거 <input type="checkbox"/> 부부 <input type="checkbox"/> 자녀와 함께 <input type="checkbox"/> 자녀가족과 함께 <input type="checkbox"/>

The Urban Spatial Characteristics of Jegi-dong Viewed from Concentration of the Elderly

Kim, Young Eun

Major in Urban Desig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Kim, Sae Hoon

Entering the aging phase, the modern society has recently witnessed the rising demand for daily leisure life among the elderly and provided more services related to their activities. The mobility of the elderly has increased more than ever thanks to the social benefit of free pass for senior citizens aged 65 or older in the name of “preferential benefits for the elderly.” They have started to look for places to meet their fundamental needs, which led to the concentration of the elderly at certain urban spaces.

This study selected Jegi-dong as its spatial scope for its prominent phenomenon of elderly concentration and restricted the scope of subjects to senior citizens aged 65 or older visiting the place. Focusing on the types of senior citizens that chose and used urban spaces, the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spaces that changed autonomously by the elderly in the three aspects of physics, humanities and sociology, and economy.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Jegi-dong was a place of diversity to meet the needs of the elderly and grant them options. Being organically connected to their daily leisure, this urban space was changing into a space of complex forms according to the recent taste of the elderly. In a word, Jegi-dong was a space of fusion between “daily life and leisure“ based on a good combination of programs and spaces preferred by the elderly.

Secondly, Jegi-dong, where the concentration of the elderly was happening, was a space for social exchanges. Senior citizens engaged in various social exchange activities within the urban spa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social exchange activities varied according to the place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elderly preferred social activities in open, wide spaces rather than those based on space zoning.

Finally, Jegi-dong had a market in it and thus benefited from lower prices than other districts in the city. Senior citizens with a certain economic level were able to enjoy themselves there. This urban space was well configured for the elderly with a monthly pension of 300,000 won to spend 10,000 won a day there, which indicates that it was organized in a thorough economic structure. The elderly were looking for places where they could enjoy their daily leisure according to their income level, and Jegi-dong was embracing them with a thoroughly organized economic structure. Those findings suggest that Jegi-dong was an urban space optimized for the income level of the elderly.

The elderly exhibited a preference for places that were less trendy, tended to be old, and cost less. Those characteristics preferred by them should last in urban spaces. The present study found the characteristics of

spaces that accepted the elderly in Jegi-dong where the concentration of the elderly was happening and reported its possibilities of being spread throughout the city.

Focusing on the phenomenon of concentration of the elderly, the study shed light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those of spaces preferred by them. It is, however, difficult to general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visiting Jegi-dong to the general population of the elderly. It should be also noted that the future generation of the elderly including the pre-elderly groups(those in their fifties or sixties) will show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current generation of the elderly. The study thus had its limitations with rather restricted results.

■ Keywords: The Elderly, Jegi-dong, Concentration, Daily Leisure Space, Urban Space

■ Student Number: 2013-23701